





| SRI-기본-2017-14 |

#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발전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pace for Culture-into-Life in Suwon

최지연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정수 (수원시정연구원 과제연구원)

© 2017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60  
                 <http://www.suwon.re.kr>  
인쇄      2017년 10월 31일  
발행      2017년 10월 31일  
디자인      아이콘커뮤니케이션 Tel. 031-245-5500  
I S B N      979-11-87778-86-8 (93600)

---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최지연. 2017.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발전방향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비매품

## 국문 요약

이 연구는 지역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생활문화 진흥에 주목한다. 생활문화는 개인의 차원에서 전문 예술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자기 삶의 의미화를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자기표현의 수단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즉, 생활문화는 장르적 관점에서 활동의 내용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행위 주체와 활동 방식의 관점에서 보통의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창작하는 문화활동을 의미한다.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체적 자기표현은 타인과의 창조적 커뮤니케이션을 발생시키며 공통의 의미와 감각을 공유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내면화하여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이는 생활문화가 개인의 차원 뿐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에서 갖는 함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조성하는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의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며 핵심적인 거점 공간이다. 생활문화센터는 시민들이 자신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공간 조성,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방안까지 자발적이며 주도적으로 마련해나가는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의 개념과 지원이 명시된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에 제정되며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생활문화 관련 정책 중 가장 비중 있게 추진되어 2017년 11월 기준 128개소를 선정하여 8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41개소가 공간 조성 중에 있다.

중앙정부의 흐름과 비견하여 현재 수원시의 생활문화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자 수원시 생활문화 정책,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수원시는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생활문화센터 2개소를 조성하였고 향후 추가 조성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사업으로 연 1회 동호회 합동 공연, 찾아가는 공연, 임원진 모임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수원시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며 생활문화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정책적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원시에는 수원시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이 다수 건립되어 있으며, 이들 시설의 문화예술 강좌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된 280여개의 문화예술 동호회가 활동 중에 있다. 현재 활동 중인 동호회와 조성된 문화시설과의 생활문화 가치 공유와 생활문화 활동 네트워킹이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수원시 생활문화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생활문화센터를 사례 조사하였는데, 수원시의 특성과 유사성을 지닌 도시형 생활문화센터와 수원에도 조성 가능하

공간을 리모델링한 생활문화센터를 사례 연구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주민자율로 운영되는 생활문화센터와 주민 이용이 활성화된 생활문화센터를 사례 연구지로 선정하여 수원시 생활문화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활문화센터 조성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읽어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내 생활문화센터들은 운영 방법과 내용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활문화센터라는 시설 조성 자체에만 중점을 둔 경우 운영방향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거나 인력과 사업 예산의 부족으로 활동의 한계를 겪고 있었다. 그 결과 국내 생활문화센터들은 대체로 기존에 운영해오고 있던 문화예술 강좌 프로그램 운영, 연습 공간 대관 등 몇 가지 틀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을 뿐, 시민들이 문화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획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공공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공간이 주민의식을 가진 자율적 문화시민들의 공간이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해야 함을 시사한다.

해외의 생활문화 공간에 대한 사례조사에서 국내 생활문화센터와는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 사회문화센터의 경우 공간의 조성부터 개인이나 시민단체, 지역단체 등 사인에 의해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공장, 상점, 창고 등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자치성’ 과 ‘민주성’ 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공적 지원에 대해 자립을 지향하며, 내부적으로는 운영 실무자 및 이용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투명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센터의 운영은 규모에 상관없이 내부의 협의체 내지는 결의기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이 보장되고 있다.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의 경우에도 설립 및 운영 주체는 가나자와 시와 가나자와예술창조재단이지만 실질적인 관리와 운영은 시민 디렉터와 서포터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통 중심의 문화행정과 과감한 운영 방식의 채택이 시민 중심의 문화 창작 공간을 창출한 것이다.

정책 지원을 받아 공식적인 생활문화센터로 명명된 공간은 아니지만 국내의 유사 생활문화 공간 사례에서도 현재 국내 생활문화센터의 양상과는 다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활권에 밀착한 동네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지역 문화예술 커뮤니티 ‘닷라인 TV’ 는 커뮤니티 아트를 지향하는 큐레이터의 참신한 기획 프로그램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지역 창작 공간이 되었다. 지역주민들의 운영위원회가 자치적으로 규칙 제정 등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창작 동아리 활동과 도시 재생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닷라인 TV’ 가 지역에 자리 잡기까지 7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사례조사를 통해 생활문화센터가 시민 주도의 자율적인 문화 창작 공간으로 자리 잡기까

지 다시 말해,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간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원칙과 규범을 확립해 나가기까지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이 자리 잡는 시간과 과정에서 생활문화를 매개하고 중재하는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지역 문화시설들과 생활문화의 활동과 지향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생활문화 정책은 참석 인원 등 수치로 환원되는 단기적인 프로그램 결과에 주목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예술적 에너지와 관계망 형성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수원시 생활문화센터가 생활문화 활동의 개인적·공동체적 함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아마추어들의 공간으로서 서로에게 배우며 타인을 인정하고 자신을 계발하여 타인의 인정을 받는 명예로운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 소비자이거나 고립된 개인이 대안적 시민 주체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문화적 활동을 인식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며 그 활동을 통해 다른 시민 주체를 만나는 공유 공간이다. 주체로서의 책임이 부여되는 대신 문화적 권리와 자율성을 누리는 시민 주체들이 서비스 제공-서비스 이용, 상품 생산-상품 소비 관계가 아닌 인정과 명예로 관계 맺는 비시장적 공간이다. 즉, 수원시 생활문화센터는 수원시가 지향하는 시민의 정부 구성원의 문화활동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원시 생활문화센터의 개념적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측면에서 시민의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치성,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활동의 측면에서 시민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지역 주체와 시설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시설 조성의 측면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권에 밀접한 공간을 확보하여 높은 접근성을 지녀야 하며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적 색깔을 살려야 한다.

아직까지 수원시에서는 생활문화에 대한 가치 인식과 활동이 생경하기 때문에 이를 공유, 확산하고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의 기초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 단위가 필요하다. 이를 가칭 ‘수원시 생활문화지원센터’ 라고 명명한다면, 수원시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생활문화 가치와 활동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MCN을 구축하는 역할, 수원시의 기존 문화자원과 네트워킹하는 수원시 생활문화 네트워크 협력체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생활권별 생활문화센터 공간을 발굴하고 조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생활문화센터에 필요한 생활문화매개자 양성 역할을 담당하는데 생활문화매개자는 창의적 생활문화 활동 인큐베이팅, 개인별 생활문화 활동 코디네이팅, 유사한 문화욕구를 지닌 각 시민 간 매칭, 강사 등 필요 인력 매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원시 생활문화지원센터’ 는 시민들의 문화 역량을 계발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작업할 지역 작가를 발굴하고 123만 수원시민 아티스트 캠페인-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상에서의 창작 활동을

기획, 제안한다. 또, 시민들의 자율적 공간인 생활문화센터가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자치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주제어: 생활문화, 생활문화센터, 주체적 문화공간, 시민창작문화, 지역문화정책



## | 차례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 자료 검토 .....	5
제1절 이론적 논의 .....	5
제2절 생활문화 관련 법령 검토 .....	16
제3절 생활문화 정책 검토 .....	22
제3장 수원시 생활문화 관련 현황 .....	29
제1절 수원시 생활문화 정책 .....	29
제2절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 .....	30
제3절 수원시 생활문화 유관 문화시설 .....	41
제4장 국내외 생활문화공간 운영 사례분석 .....	47
제1절 사례조사 설계 .....	47
제2절 국내 생활문화센터 사례 .....	51
제3절 국외 생활문화공간 사례 .....	68
제4절 국내 생활문화공간 사례 .....	76
제5절 시사점 .....	87
제5장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발전방향 .....	91
제1절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본방향 .....	91
제2절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발전 방안 .....	93
참고 문헌 .....	99

## | 표 차례 |

<표 2-1> 생활문화 개념의 변화단계 .....	5
<표 2-2> 생활문화센터와 유사 문화시설간의 비교 .....	15
<표 2-3>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의 문화권 .....	16
<표 2-4>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정책 수립·시행 상의 기본원칙 ....	17
<표 2-5> 지역문화진흥법의 생활문화지원 규정 .....	18
<표 2-6>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 관련 조례 현황 .....	20
<표 2-7>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 관련 조례 현황 .....	21
<표 2-8> 2015~16년 박근혜 정부의 주요 생활문화 정책 .....	22
<표 2-9> 2016년까지 선정된 생활문화센터의 지역별 현황 .....	24
<표 2-10> 서울시 생활문화정책 사업 .....	26
<표 2-11> 부천시 생활문화 관련 주요 사업 현황 .....	27
<표 3-1>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현황 파악을 위한 인터뷰 질문 .....	30
<표 3-2> 수원생활문화센터 공간 구성 .....	31
<표 3-3> 수원생활문화센터의 문화예술 강좌 프로그램 .....	32
<표 3-4> 경기생활문화센터 공간 구성 .....	37
<표 3-5> 경기생활문화센터 2017 생활문화 프로그램 .....	39
<표 3-6> 수원시 기타문화기반시설 현황 .....	43
<표 3-7> 수원시 청소년 문화의집 등 현황 .....	43
<표 3-8> 수원시 문예회관 현황 .....	43
<표 3-9> 수원시 등록공연장 현황 .....	44
<표 3-10> 수원시 공공도서관 현황 .....	45
<표 4-1> 생활문화공간 사례연구 공간 선정 기준 .....	48
<표 4-2> 생활문화공간 사례연구지 리스트 .....	49
<표 4-3> 생활문화공간 사례연구 주요 내용과 질문 .....	50
<표 4-4> 부산시 주요 생활문화 사업 .....	52
<표 4-5> 전주시 소재 생활문화센터 현황 .....	62
<표 5-1> 생활문화 활동범위 .....	92

## | 그림 차례 |

<그림 3-1> 수원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전경 및 내부시설 .....	34
<그림 3-2> 지동 창룡마을 창작센터 전경 및 내부시설 .....	36
<그림 3-3> 경기생활문화센터 내부시설 .....	40
<그림 3-4> 수원시 생활문화 유관 문화시설과의 연대 .....	41
<그림 3-5> 수원시 생활문화 유관 문화시설 현황 .....	42
<그림 4-1> 두송 생활문화센터 전경 및 내부 .....	54
<그림 4-2> 범일 생활문화센터 전경 및 내부시설 .....	57
<그림 4-3>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내부시설 .....	60
<그림 4-4> 양정1동 생활문화센터 전경 및 내부시설 .....	61
<그림 4-5>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전경 및 내부시설 .....	64
<그림 4-6> 인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	67
<그림 4-7> 사회문화센터 Kultrufabrik Moabit 전경 및 내부시설 .....	71
<그림 4-8> Kulturzentrum cuba 내부시설 .....	72
<그림 4-9>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전경 및 내부시설 .....	75
<그림 4-10> 서울 닷라인TV 전경 및 내부시설 .....	79
<그림 4-11> 전주시민놀이터 전경 및 내부시설 .....	81
<그림 4-12> 수원시 생활적정랩 빼꼼 전경 및 내부시설 .....	83
<그림 4-13> 수원 별터마을 문화마실 전경 및 내부시설 .....	85
<그림 4-14> 문래예술공방 내부시설 .....	86
<그림 5-1> 생활문화센터 운영 전략 .....	96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문화예술의 패러다임이 전문가 중심의 예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예술’로 점점 더 변화함에 따라 문화예술 생산 주체와 소비 주체의 경계가 열리는 추세이다. 2014년 제정한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의 핵심 영역으로 생활문화진흥을 명시하며 예술성과 시민성을 겸비한 생활문화예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채택하며 생활문화정책을 추진해 갈 것을 명시하였다.

국가 문화정책에서 본격적으로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정책과제로 내걸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생활문화를 위한 공간조성이었다. 생활문화예술과 문화동호회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지역주민이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는 ‘생활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생활문화진흥원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문화진흥원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주민들의 생활문화활동을 위한 효과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생활문화센터는 2017년 11월 기준 128개소를 선정하여 8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41개소가 공간 조성 중에 있다. 수원시에 소재한 생활문화센터는 3개소로 2015년 수원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한 수원생활문화센터, 2016년 지동 창룡마을 창작센터와 경기상상캠퍼스 생활문화센터가 각각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다.

기존의 문화시설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관련 전문가와 관리자가 제공하는 문화예술을 관람하거나 문화예술 강좌를 수강하는 문화 수용자로서 위치 지어졌다. 이와 달리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공간 조성, 프로그램 기획, 자율적 운영 방안까지 자발적이며 주도적으로 마련해나가는 지역 커뮤니티 거점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역주민은 문화의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 문화 창작자이며 수용자라는 새로운 위상을 접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 정체성 구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를 기치로 시민들의 자치와 공동체 형성에 큰

노력을 기울이는 바, 생활문화진흥은 수원시의 문화정책에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생활문화센터의 건립은 문화 ‘시설’이 늘어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하여야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문화역량을 발산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문화예술의 활동 형태나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생활문화센터 역시 지역의 상황이나 특성에 맞춰 다르게 조성되고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생활문화센터는 수원시의 문화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의 영역에서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지역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생활문화예술과 이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방안인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개념적 정립과 발전방향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념적 차원에서 생활문화와 생활문화화를 위한 공간에 대해 정리하고 수원 지역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현황과 국내의 생활문화화를 위한 공간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의 생활문화센터의 비전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문화민주주의 및 문화분권의 실현, 지역문화진흥의 관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활문화활동과 생활문화센터의 가치와 의의를 수원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한 토대로 삼기 위해 수원시 생활문화센터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과 국내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생활문화예술에 대해 개념적 접근뿐만 아니라 현실적 접근을 통해 지역문화에서의 생활문화예술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주민과 센터 지원정책 담당자가 공유하는 수원시 생활문화센터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의 기본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1) 공간적 범위

이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은 수원 지역의 생활문화센터이다. 그리고 사례 분석을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생활문화를 위한 공간들 또한 그 대상으로 한다.

#### 2) 시간적 범위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현재이다. 조사 대상 단체나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립배경이나 연혁을 포함하지만 주로 2017년의 활동과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 3) 내용적 범위

이 연구는 수원시 생활문화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생활문화 관련 법령 및 지원정책,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수원시의 생활문화 정책 및 유관 시설,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생활문화센터 혹은 생활문화를 위한 공간이나 시설의 사례를 조사한다.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자 인터뷰를 통해 지역 내 위치와 공간 구성, 이용자층의 구성 및 특성, 이용자의 자발성 정도, 센터 운영 현황 및 자생 가능성, 이용자 네트워크 등을 조사할 것이다.

### 2. 연구 방법

#### 1) 자료수집 및 문헌연구

문헌연구를 통해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 공간의 개념정립을 위한 이론 및 담론을 정리할 것이다. 생활문화 관련 제도 및 법령, 정책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진흥원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의 발간 자료,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것이다.

## 2) 현장 탐방 및 인터뷰

국내의 생활문화센터 운영방안 사례 및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기관을 방문하여 대표자나 실무자 등 운영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정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정책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 밖에 현장 매개자나 활동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생활문화센터 발전 방향 도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 자료 검토

### 제1절 이론적 논의

#### 1. 생활문화 개념

1990년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 생활문화 진흥이 명시되면서 문화정책에 생활문화 개념과 정책 및 사업이 등장하였다. 문화부에 생활문화과·지역문화과·박물관과·문화시설과로 구성된 생활문화국이 신설되었다. 생활문화과에서는 장르적 관점에서 예술이 아닌 분야를 관할하였다.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서는 그간의 창작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 문화향유 중심, 이를 위한 문화인프라 조성 등이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되었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문화의 일상화 정책이 부각되었다. 이후 생활문화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의집 조성, 시민문화예술교육 중심의 문화학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등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등의 생활문화와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이 도입되고 확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활문화 개념 및 정책적 관점은 변화를 겪어왔다. 정광렬에 따르면 생활문화의 개념은 장르·영역→활동유형→주체·대상의 관점으로 변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생활문화는 예술문화와 대비된 의식주 관련 생활양식에서 시민들의 수동적 문화관람과 대비되는 적극적인 참여적 예술활동이라는 활동유형의 관점으로, 다음으로는 주체·대상·시공간의 관점에서 생활문화를 정의하여 시민·주민의 자발적·일상적 문화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했다.(정광렬, 2016)

<표 2-1> 생활문화 개념의 변화단계

관 점	내 용 및 특 성
행위자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예술/창작자가 아닌 일반시민/아마추어의 문화활동</li> <li>• 문화향유, 문화학교, 문화교육 등</li> <li>• 비전문가의 창작활동</li> </ul>
장르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적·심미적 개념에서 확장된 생활양식 등 다양한 문화활동</li> <li>• 전통생활문화, 가정생활문화, 정서적 취미활동 등</li> </ul>
공간/시간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시간과 분리된 여가활동으로서가 아닌 일상속, 생활속의 문화활동</li> <li>• 전문문화공간, 생활문화공간 등 장소 여부는 기준이 아님</li> </ul>
활동의 방식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활동의 방식에서 주체적 활동이 기준</li> <li>• 창작활동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문화활동 기획과 과정의 주체적 참여가 기준</li> <li>• 수동적인 문화강좌 등의 문화관람 등의 관점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제외</li> </ul>

자료 : 정광렬(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18.

정책대상으로서의 생활문화의 개념의 명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생활문화를 규정하는 특성으로는 지역성, 시민성, 자발성, 일상성을 들 수 있다.

생활문화는 고급예술의 대중화 전략으로 추진되었던 엘리트 지원중심의 ‘문화의 민주화 전략’에서 향유자 중심의 창작 및 예술참여 활동을 중요시하는 ‘문화민주주의 전략’으로 정책의 초점이 옮겨가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근대 이후 예술은 고급예술이라는 신성화된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문 예술가와 주변 집단 및 사회 엘리트의 전유물로서 대중들의 일상생활의 영역과는 분리되어 존재해왔다. 예술에 접근하거나 이해하고 혹은 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소유하거나 별도의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가진 사람들만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변화는 이러한 예술 지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받은 시민계층이 확대됨에 따라 특정 사회집단의 전유물이었던 문화자본이 민주화되었고, 예술 향유계층은 일반시민들로까지 확대되고 예술제도 또한 점차적으로 대중화되었다.

또한 근대사회로 들어서며 이전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지기 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예술의 역할과 의미가 확장되었다. 일상생활이 주요한 삶의 장으로 인식되면서 예술은 정립된 주체적 조직, 주체적 결정, 주체적 표현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활동적 삶의 한 형태로 인정받게 된다.(강윤주, 2012: 13) 예술은 특정 집단이나 사람들에 의해 특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관념이 위협받게 된 것이다. 개인은 자신들의 생활과 생각을 감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예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한편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점점 상업화하고 제도화하는 엘리트 예술을 비판하고 공공성의 가치를 모색하면서 공동체 예술이라는 흐름이 시작되었다. 공동체 예술은 제도화된 예술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삶과 공동체와 관련된 주제로 직접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을 포괄한다. 공동체 예술은 갤러리나 미술관을 벗어나 거리나 광장, 건물과 공원과 같은 사회적 공간을 예술활동의 장소로 삼았고 주민들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예술과 결합시키고자 했다. 지역이라는 생활 거점과 예술의 단순 소비자로서가 아닌 능동적인 생산자로서의 주민, 예술의 소재와 주체로서의 구성원들의 삶은 공동체 예술의 중요한 구성요건이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 공동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예술 프로젝트들이 지역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과 협업을 통해 수행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예술은 서구에서

유입된 것만이 아니며 그 이념적 단초를 1970-80년대 민중문화운동에서 찾기도 한다.(김종길, 2012; 박미연, 2013) 당시의 민중문화운동은 민중의 저항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민중의 대동성, 공동체성과 생명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실천이었다. 이 문화적 기반은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운동의 정서적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김종길, 2012: 84)

생활문화의 주체는 시민이다. 이 시민은 특정한 장소에 거주하는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개인의 파편화가 심화되면서 역으로 공통의 정서와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생활문화의 가치는 개인적·정서적 활동이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예술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통하여 문화의 주요 속성인 공유와 학습, 전승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기서 공동체적 활동의 의미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역활동의 매개로서 예술활동을 하는 특정화된 활동의 의미를 넘어선다.

강윤주(2012)는 활동의 거점이 제도적으로 분리된 체계가 아닌 ‘일상생활’ 이고 참여자들의 사이에 ‘평등한 커뮤니케이션’ 이 이루어지고 ‘공통적 감각과 의미가 형성’ 된다면 참여자가 아마추어이건 전문예술가이건 무관하게 그러한 활동을 생활예술이라 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생활예술의 목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참여를 통해 주어진 상황에 창의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자아정체성을 모색하고 상호이해를 도모” 하는 것이다. 즉 생활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창조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며 “이 같은 과정 속에서 신뢰와 유대를 창출하면 동시에 이를 갱신함으로써 공동체를 살아 숨 쉬고 변화하는 창조적 생태계로 발전” 시킨다는 것이다.(강윤주, 2012: 29)<sup>1)</sup>

생활문화의 활성화는 시민성으로서의 실천성과 예술로서의 창의적 속성 등이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예술생태계의 관점에서는 삶과 예술이 어우러지면서 건강한 예술소비자를 양성하여 지역예술 창작진흥과 예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예술 활동에 직접적 참여하는 것은 창조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을 가져오고 공동체 의식을 내면화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활문화는 지역문화와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1) 이러한 맥락에서 생활예술은 전통적인 장르 중심의 예술 개념을 넘어 문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혹은 생활문화예술로 쓰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생활예술과 생활문화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것이다.

## 2. 생활문화 활동의 가치와 의미

앞서 살펴 본대로 생활문화 활동은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활성화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주요한 생활문화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생활문화센터 조성, 생활문화 공동체 조직 지원,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에 대한 것이다. 생활문화정책은 공동체 단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도 생활문화를 통한 공동체 형성이 현대 사회의 단절된 인간관계에 대한 대안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생활문화 공동체를 구성해야 하는지, 공동체 내 관계와 운영 방식에 대한 규범은 어떠한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공동체는 그 자체로 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성격 등에 대한 논의 없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대한 강조는 자칫 집단주의적 혹은 권위주의적인 공동체 형성으로 귀결될 위험을 안고 있다.

현대 도시사회는 근대 이후에 발견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장과 익명성을 원리로 구성된 사회이다. 개인에게는 “외부의 강제 없이 자신의 고유한 삶의 주체가 되고, 선택하지 않은 집단의 강요 없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창조할 권리가 있다.(Laurent 2001: 12)” 문화기본법에 규정된 문화권 역시 이러한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생활문화 활동이 개인에게 어떠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 관점에서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개인은 근대 사회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원리에 의해 발견된 범주이며 자유와 행복의 기본 단위이자 중심적인 주체로 설정된다. 하지만 근대 이후 전근대적 공동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외부환경의 강제력에 의해 개인은 개인이며 동시에 국민과 계급으로 호명되기 시작했다.

“개인이 의미 있는 범주로 발견되는 근대사회로 향한 길은 개인의 발견이 개인주의로 귀결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의미 있는 범주로 부상하고 있는 개인을 외부에서 결정하는 사회적 힘 역시 개인이 발견되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근대에 발견된 개인의 의미는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근대적 개인성은 모든 인간 존재의 자연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부속물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은 사회 전체의 공공복리 편에서 행위하는 권위에 의해 창출되고 훈련되고 법으로 규제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Bauman, 2002: 73)”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창조할 권리’의 주체인 개인은 새롭게 대체된 외부질서인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임노동으로 인한 소외와 생애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점증하는 불안에 겪는 존재이다. ‘노동의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고용의 불안정성 증대는 노동자 개인에게 보다 생산성 높은 노동력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시장적 규범 아래 분절된 개인들은 삶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인식하기보다 개인의 능력 문제로 치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식 틀에 갇히게 된 개인은 물질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타인을 올려다보며 열패감에 사로잡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불안한 개인은 현재 자신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현재보다 나은 소비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경영’, ‘자기계발’에 몰두하게 된다.

“근대에 들어와 공적으로 수행되는 노동이 특이한 방식으로 완벽해진 반면, 우리의 행위 및 언어 능력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질을 거의 모두 상실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사회의 발생으로 이런 능력들은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으로 추방당했기 때문이다.(Arendt, 1997: 102)”

개인화와 국민국가화, 자본주의적 시장질서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근대 이후 사회의 공간은 개인의 사적 공간과 외부의 공적 공간으로 이원화된다. 공동체가 파괴되고 외부공간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개인은 개인화 경향이 공간화 되어 사적 공간으로 침잠하거나, 화폐로 매개되는 외부의 공적 공간에 포섭된다(노명우, 2008: 33).

공적 공간이 물질주의적 질서로 재편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한국 사회의 스노비즘 문화이다. 스놉(snob)은 자기의 자원을 자기와 동일시한다. 또한, 타인의 자원을 타인과 동일시하여 타인을 평가한다.(김홍중, 2009) 여기서 자원이라는 것은 교환가치로 치환되어 편리하게 타인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량적인 평가척도이다. 이러한 스노비즘이 현재 한국인들의 문화적 아비투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 삶의 경험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브랜드 가치가 높은 아파트, 고급 외제 승용차와 명품에 대한 이상을 기준으로 자신과 주변 이웃들의 생활수준을 비교하고, 자녀들이 명문대 입학에 사활을 걸어 부의 재생산과 계층 상승을 노린다. 한류스타들과 글로벌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길 원하며, 소비를 통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푸는 한국인의 일상은 지난 30여 년 동안 소비자본주의적이며 스노비즘적인 문화적 아비투스가 중산층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구축되었음을 보여준다.(이동연, 2010)

장은주(2008)는 이러한 스노비즘의 본질을 맹목적 이익추구나 과시적 물질주의가 아니라 빛나간 인정의 욕망에서 찾으며 그 바탕에 우리 근대성에서 일상화된 체계적 모욕과 무시

의 경험이 깔려 있다고 진단한다. 타인을 이기고 살아남아야 하는 적자생존의 이데올로기와 돈과 권력이 삶의 유일한 가치라는 편협한 사회적 인정지평 간의 악순환이 유례없는 경제적 성공 못지않게 유례없이 확산된 속물문화의 동력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몰신성이 전면화된 시대에서 개인이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돈과 권력에 의한 사회적 인정지평’이 우세한 사회에서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몰화된 욕망 이외에 다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적 인정과 지지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을 타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고독하고 지난한 일이 된다.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창조할 권리’의 주체인 개인은 각자 고립된 사적 공간으로 후퇴한다.

물질주의로 일원화된 인정지평에서 허무와 권태, 열패감을 겪는 개인에게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의 인정 관계망이 필요하다. 이것이 개인의 관점에서 생활문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이다. 대안적 가치의 인정관계를 모색하고자 할 때, 하위징아의 연구는 중요한 참조가 될 수 있다. 그는 저서 『호모 루덴스』에서 놀이 정신이라는 인간의 본원적 욕망에서 인간의 본질을 재발견하였다. 인간의 특질을 사유로 본 호모 사피엔스 개념과 유용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주목한 호모 파베르 개념과는 달리, 하위징아는 인간에게 이러한 특질로 환원되지 않는 인간의 놀이 행위가 인류 문화의 원리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합리성과 노동 중심의 근대 사회에서 인간은 호모 파베르로 축소되어 인류 문명과 문화 생성 원리로서 놀이의 가치는 아이들이나 하는 유치한 행위로 그 의미가 격하되었고 놀이 정신 위에 만들어진 문화는 소멸해가고 있음을 비판한다.

문화가 생성되는 원리로서 놀이의 가치는 일상적 창조 행위로서 생활문화에 주는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는 ‘유용성의 사슬을 벗어나서 아름다움을 그 자체로서 열망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시, 생활문화는 호모 루덴스가 일상의 경험들에 새롭게 접근하고 다르게 표현하여 일상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문화적 욕구 충족 행위이다.

“호모 루덴스는 기능 충족 이상을 원한다. 밥을 담는 기능 이상을 요구했기에 호모 루덴스는 우리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뛰어난 도자기를 만들어 냈다. 열매를 먹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것 이상을 원했기에 호모 루덴스는 정원을 꾸몄다.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 이상을 바랐기에 호모 루덴스에게서 패션이 나타났다(노명우, 2011: 41)”

생활문화 활동을 향유하는 개인은 아마추어이다.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구분하는 기

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나 기술 습득 수준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프로페셔널은 직업적 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아마추어는 그 행위를 직업으로 삼아 경제적 이익을 얻는 프로페셔널과 달리, 그 행위 자체를 애호하는 사람이다. 어떤 행위가 프로페셔널에게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노동인 것과는 달리 아마추어에게는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인 놀이이다. 이를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다. 프로페셔널의 노동이 소외의 함정에 빠지는 동안 아마추어의 놀이는 자발적으로 그 행위를 원하기에 몰입과 열광의 에너지가 깃들어 있으며, 자율적이기에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며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다. 생활문화의 활성화는 개인을 애호가로 나아가게 한다. 창조적 개인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또한, 놀이는 집단적 현상이다. 놀이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 관계의 틀이다. 관계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유희와 명예를 얻기 위한 인정투쟁이다. 개인은 자신의 가치와 미덕을 확신하기 위하여 명예를 갈망한다.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로서 판단력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디오니소스 축제가 벌어지는 디오니소스 극장은 연극으로 벌이는 인정투쟁의 장이었으며, 고대 중국의 계절제는 청춘남녀가 춤과 노래로 교류하고 경쟁하는 장이었다. 물질보다는 명예라는 대안적 인정관계의 가능성을 놀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생활문화 공동체는 개인 애호가보다 고립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명예를 선사하는 대안적 가치의 인정관계이다.

### 3. 생활문화를 위한 공간,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 주체들이 새로운 인정관계를 형성하는 창작 공간인 생활문화센터는 어떠한 개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는 사회이론의 차원에서 공간에 대한 개념을 논의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사회이론에서 공간은 민주주의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근대의 공론장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장소들은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정한 장소들은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행위를 조율할 수 있고 한편으로 장소가 제공하는 환경은 그곳에서 기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암시함으로써 개인들의 행동과 정체성을 규정해 주기도 한다.(Kohn, 2013: 14)

‘사회-공간 변증법(socio-spatial dialectic)’은 사회적 과정에 의해 공간성이 생성되지만 이 공간성은 다시 사회적 과정을 재구성한다. 공간은 생산의 사회적 관계를 함축할뿐더러 그 관계를 재생산하는데 이용된다. 그래서 “(사회적)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Lefebvre, 2011: 71)이며 “공간의 조직과 의미는 사회적 해석과 이행, 경험의 산물”(Soja, 1997: 106)

이다.

공간은 개인과 집단이 저마다 사물의 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감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공간적 배치는 잠정적인 형태들을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경관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사회적 관계가 자연적인 것으로 보이게 한다.(Kohn, 2013: 15) 공간적 형태들은 개인들이 공유하는 배경이 됨으로써 각 개인들의 실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통합하는 구실을 한다.

특정한 장소나 공간은 개인이 권력을 경험하는 구체적 양식이며 어떤 장소들은 특정한 행위에 맞춰 설계된다.(Kohn, 2013: 37) 예를 들어 기업의 CEO나 기관 대표의 사무실이 권력과 특권의 분위기를 발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정한 공간들은 그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제약하기도 한다.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몸 자체가 권력에 의해 포위되는 방식의 변형을 설명하기 위해 공간 구성체들을 분석했다(Foucault, 1994). 푸코는 벤딤의 원형 감옥(panopticon)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간적 통제를 설명하였다. 원형 감옥은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위협을 느낌으로서 자기 규율을 내면화한다는 원리에 기반하여 고안된 감옥인데 이를 통해 근대사회가 몸을 정치적으로 에워싸는 매커니즘을 파악한 것이다. 감옥이나 학교 같은 공간 구성체들의 권력은 주체성이라는 관념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특정한 장소에 몸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에서 발생한다. 즉 개인을 형성하는 주요요인은 장소가 이미지를 규격화하고 감각을 통제하며 특징적인 동작을 지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건축은 의미로 가득 찬 공간, 특별함을 보유한 공간을 생산해낸다. 건축물은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그들의 체험 속에서 재생산된다.(Lefebvre, 2011: 221) 구성된 사회 공간과 그에 상응하는 신체적 실천<sup>2)</sup> 즉 공간으로 인해 경험된 생활방식은 내재화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간은 주체를 생산하고 규율하기 위한 양식에만 머물지 않는다. 공간은 또한 인간 창조성의 표현이자 물질생활의 요소이다. 르페브르는 지배받는 공간과 전유되는 공간을 구별하면서 이 공간들의 규율적 양상과 동시에 해방적 양상을 포착한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지배받는 공간을 기술적 조작을 통해 주인의 기획이 실현되는 무대라고 규정한 반면 전유되는 공간은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변형된 무대이다.(Lefebvre, 2011: 256-262)

큰 또한 공간이 사회통제뿐 아니라 사회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Kohn, 2013, 34) 큰에 따르면 전유되는 공간은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실험과 수정

2) ‘신체적 실천’은 큰이 사용하는 용어로서 “몸이 의식적인 성찰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자기 주위의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Kohn, 2013, 39)



을 통해 차츰차츰 획득하게 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적용하면서 생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특수한 상황에 맞게 생산되지만 인간의 창조성, 전수받은 경험, 이용 가능한 자원의 결합을 보여준다. 콘은 이러한 전유되는 공간의 대표적인 예로 유럽의 민중회관을 들고 있다. 민중회관은 집단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공간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통용되는 정보와 자원을 이용하여 조금씩 재전유하여 발전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중회관은 명령을 전달하고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위로부터 형성된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연결망을 통해 접속된 다양한 사회구성체들로 이루어져 중심이나 위계가 없는 참여 시스템을 함축하는 구조를 보여준다.(Kohn, 2013: 151~2)

이러한 공간의 의미는 비단 협의의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과 만난다. 문화정책에서도 공간에 대한 기획을 찾을 수 있는데,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 전략이 대두되었을 때 활발하게 추진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전당과 같은 예술기관의 설립이다. 문화의 민주화 전략은 오페라, 발레, 연극, 클래식 음악 등의 고급예술을 다수의 일반대중이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고급예술이 주로 생산·소비되는 기존의 대형예술기관을 그 중심에 놓았던 것이 초기 ‘문화의 민주화’ 전략이었다.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생활문화의 활성화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전략의 핵심 영역으로 꼽히고 있다. 문화정책에서 문화민주주의 전략은 문화예술을 순수예술로 한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 스스로 자신의 예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예술은 소위 고급예술만이 아니라 아마추어 예술, 지방예술, 실험예술, 대중예술까지 모두 예술에 포함시키는 광의의 예술 개념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예술을 정의하다 보면 대안문화, 비기구화, 비집중화란 특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전위적인 문화, 하위문화, 여성문화 등 다양한 문화와 예술들이 모두 포함된다. 제도 안에 머무르는 것을 거부하여 정형화된 예술기관으로 활동하지 않거나 기존의 예술기관의 공연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인 활동이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된다. 또한 예술작업에 있어서도 아마추어와 전문가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인정하기 않으면서 예술참여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객지향성을 가진다.(김경욱, 2003: 35~36) 이러한 문화민주주의 전략 하에서는 기존의 문예회관이나 박물관 즉 오페라, 연극, 발레, 오케스트라 등의 고급 예술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시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문화공간을 필요로 한다.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문화 활동 형태가 전문예술가들의 기존의 장르 중심의 예술 행위

를 관람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 적극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의 창조자로서의 활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기존의 전문 예술 장르 분야뿐 아니라 대중문화, 생활예술, 전통문화, 지역문화, 축제, 문화이슈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예술 활동 영역에서 소비자, 창작자, 매개자, 기획자, 협력 등 다양한 위치를 넘나들며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은 분화된 취향에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추구하면서 여러 하위문화가 등장하고 문화동아리, 문화커뮤니티 등 자발적으로 생성된 문화집단 또한 늘어나고 있다. 아마추어 예술과 전문 예술의 엄격한 구분보다는 상호연계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마을 주민들이 지역적 맥락에서 문화적 특성을 발굴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마을의 역사와 문화자원, 생활양식이 문화 창작 활동의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참여, 자체적인 공연 및 전시활동 참여, 문화예술 동호회나 커뮤니티 활동,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커뮤니티 아트 활동,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문화 활동 등 시민들의 문화 활동 형태와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이는 문화 공간의 다양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작은 도서관, 카페, 동네 문화사랑방, 마을극장, 주민자치센터, 마을공동체 시설, 구민회관, 소규모 미술관 및 박물관의 커뮤니티 공간, 전통시장의 작은 공간을 활용한 갤러리, 지역 유희공간 등 소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을 지역주민들이 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문화 활동 공간이 갖는 사회적 힘은 미약하다. 개인은 여전히 노동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식사, 수면 등 생존과 관련된 생리적 구속시간과 노동 시간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구속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 일부에만 취미 활동이 가능하다. 또, 근대 이후 개인의 사적 공간과 외부의 공적 공간으로 이원화된 사회 공간에서 대부분의 공적 공간은 상업화되었다. 개인은 제한된 시간과 비용으로 상업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활동을 하거나 사적 공간에서 개인적 취미활동을 한다. 현대사회 개인은 주체가 되는 불편함과 책임을 덜어내고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간편하게 사적·공적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이거나 사적 공간에 고립된 존재이다.

생활문화센터는 소비자이거나 고립된 개인이 대안적 시민 주체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문화적 활동을 인식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며 그 활동을 통해 다른 시민 주체를 만나는 공유 공간이다. 주체로서의 책임이 부여되는 대신 문화적 권리와 자율성을 누리는 시민 주체들이 서비스 제공-서비스 이용, 상품 생산-상품 소비 관계가 아닌 인정과 명예로 관계 맺는 비시장적 공간이다.



## 제2절 생활문화 관련 법령 검토

### 1. 문화기본법

‘생활문화’ 라는 용어가 법조문에 직접 명시되어 이후 생활문화진흥정책 추진의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된 법령은 2014년 제정 및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이다. 문화기본법은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이 ‘생활문화’ 를 명시하진 않지만 지역문화진흥법과 마찬가지로 문화를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 문화권 등을 명시하여 지역문화진흥법의 이념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표 2-3>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의 문화권

<p><b>제2조 기본이념</b></p>	<p>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b>제 3조 정의</b></p>	<p>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p>
<p><b>제 4조 국민의 권리</b></p>	<p>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p>

문화기본법은 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확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원칙을 명문화하였는데, 제7조 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문화정책을 수립·시행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8조에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지역문화와 여가문화의 활성화 등에 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

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생활문화진흥에 대한 원칙적 차원의 명문화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 정책 추진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4>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정책 수립·시행 상의 기본원칙

<b>제 7조</b> <b>문화정책</b> <b>수립·시행상</b> <b>의 기본원칙</b>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li> <li>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li> <li>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li> <li>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li> <li>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li> <li>6. 문화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li> </ol>
--	---

## 2.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문화진흥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의 측면에서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 생활문화 활성화 여건 조성이라는 기본원칙, 생활문화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생활문화 활동과 공간 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을 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의미한다. 생활문화를 활동 영역으로 개념화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라는 주체의 욕구를 중심으로 자발성과 일상성, 즉 활동 방식의 차원을 강조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생활문화 개념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생활문화 활동이 아닌 것이 없게 되어 어디까지 생활문화의 범주와 영역인지 모호하며, 일상 속에서 행하는 문화적 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책 입안과 수행 현장에서의 혼선으로 나타난다. 현장에서는 결국 생활문화라는 용어만 바뀐 채 기존에 행하고 있던 시민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역문화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문화예술단체나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생활문화시설 건립과 운영,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8조 3항과 4항은 특기할 만하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는 크게 ①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등 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과 같은 기존의 문화기반시설 ②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③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등 사실상 거의 모든 공공문화시설이 생활문화시설에 범위에 포함된다.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생활문화시설의 광범위한 규정 역시 생활문화 활동의 범주에 혼선을 야기한다.

<표 2-5> 지역문화진흥법의 생활문화지원 규정

<p><b>제 7조 생활문화지원</b></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b>제 8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b></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 3. 생활문화 관련 조례 현황

생활문화 관련 조례는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이거나 지역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생활문화 관련 조항들을 포함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이들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문화 진흥법에 근거하거나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13년 12월 31일 제정된 대전광역시 생활예술 진흥 조례를 시작으로(추후 개정), 2017년 9월 현재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12개 조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36개 조례를 제정하여 총 48개 조례가 시행 중에 있다. 수원시의 경우 생활문화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이며, 광역 단위인 경기도에서 제정한 경기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만 있는 실정이다. 광역 지자체 뿐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도 생활문화진흥에 관해 조례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수가 많은 수원시는 아직까지 시 행정과 의회 차원에서 생활문화 활성화의 가치와 필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진흥 조례는 대개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경우가 대다수지만 경기도 부천시나 전북 정읍시, 전남 나주시의 경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생활문화진흥 조례는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생활문화 지원 사업,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등의 생활문화진흥 조례의 경우 생활문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데, 생활문화 지원센터의 역할은 대개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
2.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3. 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
4.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문화 진흥 우수자 선정
6.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7.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8. 생활문화 마을공동체 축제 육성·지원
9.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한, 광주시 등의 경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문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생활문화협의회는 시의원, 관계 공무원, 생활문화예술 단체나 동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및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자체의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생활문화 진흥 및 지원 등의 조항을 포함한 경우

부산시 등의 경우에는 따로 생활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역문화진흥 조례 안에 생활문화진흥에 대한 장을 구성하여 생활문화진흥 사업,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였다. 조례 내용상 생활문화진흥 조례와 뚜렷한 차이는 없다.

3) 각 지역별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정책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한 각 지역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센터의 사업과 센터 이용 절차 등 시설 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조성 중인 생활문화센터들이 많아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표 2-6>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 관련 조례 현황

연번	자치단체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
1	부산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2017.03.22.
2	인천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2014.05.26.
3	대구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6.10.31.
4	광주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15.12.28.
5	대전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2015.08.14
6	경기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7.01.05.
7	강원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2017.04.07.
8	충북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2016.04.01.
9	경북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2017.06.12.
10	경남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2014.10.30.
11	전북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2015.10.12.
1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5.10.06.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표 2-7〉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 관련 조례 현황

연번	자치단체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
1	부산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2016.02.19.
2	부산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05.13.
3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	2015.11.06.
4	부산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07.01.
5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04.04.
6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2016.11.18.
7	인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2017.04.17.
8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07.07.
9	대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09.30.
10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08.10.
11	울산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12.30.
12	울산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6.09.22.
13	경기 고양시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2016.01.15.
14	경기 부천시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2017.08.14.
15	경기 광명시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2016.01.01.
16	강원 동해시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05.13.
17	강원 영월군	영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2016.12.30.
18	충북 괴산군	괴산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05.13.
19	충남 보령시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06.10.
20	충남 당진시	당진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06.30.
21	경북 성주군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05.04.
22	경북 포항시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06.07.
23	경북 영덕군	영덕군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0.18.
24	경남 사천시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5.10.06.
25	경남 거창군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2015.12.10.
26	경남 함안군	함안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5.12.31.
27	전북 고창군	고창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5.08.19.
28	전북 정읍시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5.11.13.
29	전북 김제시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2015.10.19.
30	전북 남원시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2015.11.11.
31	전북 완주군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6.03.17.
32	전남 화순군	화순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5.10.05.
33	전남 해남군	해남군 문내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10.08.
34	전남 나주시	나주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2017.03.22.
35	전남 광양시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07.28.
36	전남 화순군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2016.07.18.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 제3절 생활문화 정책 검토

#### 1. 중앙정부의 생활문화 정책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와 생활문화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난 정부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과 생활문화 공동체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2016년 5월에 생활문화정책의 전담기관으로 (재)생활문화진흥원을 설립하여 생활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활문화진흥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사업이 있다.

<표 2-8> 2015~16년 박근혜 정부의 주요 생활문화 정책

사업명	지원주체	예산규모		지원대상	내용
		'15	'16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20억	135억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지원
생활문화센터운영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진흥원	15억	5억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기획프로그램 및 이용자 지원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진흥원	20억	16억	생활문화동호회/단체	프로그램 운영지원 /축제개최 지원 /전국생활문화제 개최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지원	생활문화진흥원	12억	10.8억	지역기반 단체/기관/시설/주민조직	사전활동비 /공동체 형성 활동비 지원
문화이모작	한국문화원연합회/생활문화진흥원	1.6억	1.45억	마을리더 /시민활동가 /마을살이 및 인생이모작 준비자	교육 및 기획사업 /지식 실행 공동체 지원

출처: 정광렬, 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p.24.

### 1) 전국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황

생활문화정책 초기부터 시도되었던 생활문화의 공간 조성 정책은 다른 생활문화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길다. 1990년대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설립·운영하였던 ‘문화의 집’은 비록 생활문화 정책으로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상 생활문화를 위한 공간 조성 정책이었다. 즉, 생활문화정책의 시초에서부터 생활문화를 위한 공간의 조성에 관심을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문화의 집은 주민들의 생활권에서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문화의 집은 주로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안내데스크 등으로 구성되었다. 문화시청각실은 각종 전자매체를 이용한 자료실 역할을 하고, 문화관람실은 소규모 공연과 실내악 연주회, 전시, 문화강좌 등을 할 수 있으며, 문화창작실은 개인 및 공동 창작실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사랑방은 문화동호인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2004년도에 시행된 ‘생활친화형 문화공간 조성사업’ 또한 생활문화 공간조성 정책이었다. 이 사업은 마을이나 동네에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참여정부의 ‘생활친화형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2009년부터 생활 속의 예술 환경의 조성이라는 취지로 ‘생활문화동공체 만들기 사업’으로 변화한다. 이 사업은 문화소외지역(임대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다. 문화예술활동을 매개로 생활문화공공체를 만들고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면서 다양한 생활문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생활문화센터이다. 지역의 자생적인 문화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거점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제시하 이를 위해 공간 조성 지원,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시기에 시작된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정책은 2017년 11월 기준 총 128개소를 선정하여 87개소가 개관 운영 중에 있으며, 41개소가 공간 조성 중에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조성비를 지원, 기존 시설이나 유휴공간을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조성하고 있다.

<표 2-9> 2016년까지 선정된 생활문화센터의 지역별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14년	0	3	2	1	2	1	0	6	2	0	1	3	5	4	3	1	0	34
15년	1	3	3	2	1	0	2	3	5	0	2	2	4	1	0	3	2	34
16년	2	7	1	3	1	1	1	2	1	1	0	2	3	2	2	2	3	34
<b>총계</b>	<b>3</b>	<b>13</b>	<b>6</b>	<b>6</b>	<b>4</b>	<b>2</b>	<b>3</b>	<b>11</b>	<b>8</b>	<b>1</b>	<b>3</b>	<b>7</b>	<b>12</b>	<b>7</b>	<b>5</b>	<b>6</b>	<b>5</b>	<b>102</b>
기존시설	0	8	5	5	4	2	1	6	6	1	0	7	9	4	2	5	5	70
유휴공간	3	5	1	1	0	0	2	5	2	0	3	0	3	3	3	1	0	32

출처 : (재)생활문화진흥원(<http://www.nccf.or.kr>)

(재)생활문화진흥원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개관한 생활문화센터에 대해 운영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사업에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컨설팅 지원,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 생활문화센터 운영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아카이빙 사업이 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컨설팅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자 통합 컨설팅 워크숍, 생활문화센터 모델육성을 위한 집중컨설팅, 생활문화센터 조성 추진 단계 점검을 위한 수시컨설팅 등이 추진되었다.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은 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 지원 사업인데, 2014년부터 76개소 생활문화센터가 99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주요 프로그램에는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수요조사, 생활문화 선진지 견학, 문화매개활동가 양성, 생활문화센터 운영방안 수립연구, 생활문화 장터, 생활문화센터 동호회연합회 워크숍 등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지원받았다.

한편, 생활문화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인력들에게 생활문화 정책의 개념 및 생활문화센터의 역할과 기능에서부터 센터의 운영실무 분야까지 생활문화센터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또, 각 지역에 조성된 생활문화센터들이 서로의 운영 경험, 정보, 사례들을 공유하여 생활문화센터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토론회, 포럼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최하였다. 한편, 생활문화센터 현황과약, 사업평가, 공간아카이빙 등 생활문화센터 및 생활문화정책에 대한 의미와 성과를 분석한 자료를 제작하여 공유하고 있다.

## 2) 생활문화 공동체 지원 사업 현황

중앙정부의 생활문화 공동체 지원 사업은 육성 지원과 활성화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육성 지원 사업인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문화소외지역 생활권의 주민들의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그 목표가 있으며,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형성된 생활문화 동호회의 일상적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축제를 지원하여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 지원 사업은 지역 공감대 형성 등 사전 준비 →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젝트 실행 → 주민 중심 공동체 전환 및 역량 강화 → 주민 조직 공동체 자생력 강화 등 단계를 나누어 주민공청회, 지역문화자원 발굴, 생활문화 프로그램, 마을 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활문화공동체 역량강화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과 생활문화공동체 사례 발굴 및 확산 활동을 위한 사례집 제작 등을 하고 있다.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우리 동네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지원,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가 있다. 우리 동네 생활문화 프로그램은 마을 단위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마을 생활권 내에서 지역주민 및 생활문화 동호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역에서 누적 지원 프로그램 수 77개, 201회의 생활문화 동호회의 발표회, 공연, 전시, 생활문화 체험 등이 열렸다. 누적 참여 동호회 1,527팀, 관람객은 94,026명이 참여하였다.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는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장르 기반 연합 발표 및 교류 프로그램,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간 권역 단위 교류 프로그램, 지역문화, 역사, 특산물 등을 소재로 한 교류 기반 공동 생활문화 창작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시작되어 누적 30개 프로그램이 96회 운영되어 2,086개 동호회, 510,040명의 관객이 참여하였다.

2014년부터 매년 가을 개최되는 전국생활문화축제는 전국 생활문화 동호회, 지역문화재단, 연합 단체 등이 참여하여 생활문화 동호회 공연 및 전시, 체험, 기획 및 참가자 교류 프로그램 등이 열린다. 문화를 통한 지역 간 교류·소통·협력으로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을 독려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활동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 정책 사례

### 1) 서울특별시의 생활문화 정책 사례

서울시는 지자체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생활문화 정책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서울문화플랜 2030>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모두의 문화’로 ‘시민의 행복한 사람’을 지향하는 ‘문화시민도시 서울’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본부 내 ‘생활문화팀’ 신설하였다. 2016년 8월에는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하고 2020년까지 생활문화센터 90곳 조성하고 모든 시민이 하나의 생활문화 활동 참여라는 거대한 양적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생활문화 사업은 ① 네트워크를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② 생활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③ 생활문화 기반을 조성하는 캠페인과 연구 사업 등 크게 3가지 파트로 체계화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10> 서울시 생활문화정책 사업

목표	구분	사업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People)	지역 모델	지역 동아리 네트워크, 축제 및 문화지도, 자치구 거버넌스 구축	- 지역 커뮤니티 예술 활동 지원 - 자치구 생활예술 거버넌스 구축 - 자치구 생활문화 조례 추진
	장르 모델	예술활동 역량 강화, 장르별 네트워크 축제	-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지원 및 축제 개최 -댄스 커뮤니티 지원 및 축제 개최
생활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Place)	생활문화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생활음악센터” 등으로 특화 “생활문화 그루터”	- 권역형/장르별 중심 거점 지원 기관 - 생활권형 생활문화 시설
생활문화 기반 조성지원(Platform)	캠페인	연간 캠페인 - “반려 예술 캠페인” 생활문화주간 - “위살롱 페스 티벌”	- 분기별 장르 예술활동 집중 독려 - 생활문화 활동 종합 사진 및 영상 전시 등
	생활문화 캠페인 및 연구평가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 개발 연구 생활문화 지표 및 평가지표 수립	- 생활문화 액션 리서치 - 사업 평가 및 시범 운용

## 2) 부천시의 생활문화 정책 사례

부천시는 수원시보다 약간 규모가 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는 2014년 10월에 부천시 생활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생활문화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해 12월 부천문화재단 생활문화사업팀을 구성하여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조직을 마련하였다. 2015년 1월에는 부천의 생활문화센터를 지원하는 중간 조직인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는 현재까지 부천에 조성된 7개의 생활문화센터 공간 운영 지원과 공간 조성 사업, 동호회들의 생활문화연합회 매개하는 등 네트워크 사업, 생활문화 교육 지원 사업, 생활문화페스티벌 등 각종 공연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부천문화재단에서는 생활문화 연구와 정책개발,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등을 담당하여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11> 부천시 생활문화 관련 주요 사업 현황

구분	사업	주체
장르 중심의 아마추어 예술 동호회 발굴, 육성 지원	- 생활문화 참여자 네트워크 (생활문화연합회, 생활문화협동조합 등) - 동호회 발굴, 육성(문화원, 여성회관, 주민센터 등) - 공연(버스킹 등), 전시회 등 활동 지원	부천시, 문화복지교육기관, 민간단체
지역공동체형 사업	- 동단위 문화마을만들기 사업 - 생활문화공동체 사업(보조금) - 아파트아트밸리, 시민Cop	문화재단, 주민조직
지역 특화콘텐츠 연계 생활예술화	- 주민밀착형 만화문화공간(만화도서관 등) 조성 - 만화벽화(아파트), 시민만화교육, 앨범 사업 - 찾아가는 음악회, 광장 상영회	만화영상진흥원, 영화제, 예술단, 문화재단 등
아트밸리 사업 (생활문화 역량 강화 사업)	- 학교아트밸리 - 시민아트밸리 - 실버아트밸리	부천시, 교육지원청, 문화재단
생활문화 공간 조성	- 예술마당, 어울마당 등 생활문화 연습, 공동 작업실, 생활 속 무대(광장, 공원 등) 조성 - 생활문화센터 → 생활문화 거점화	부천시, 문화재단





## 제3장 수원시 생활문화 관련 현황

### 제1절 수원시 생활문화 정책

수원시의 생활문화정책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2건과 수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수원문화클럽 활성화사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17년 현재까지 수원시가 민간의 신청에 의해 조성한 생활문화센터는 2015년 9월 개관한 수원문화원 수원생활문화센터와 2016년 4월 개관한 지동 창룡마을 창작센터이다. 2개소의 조성을 위해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조성 예산을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수원문화원 수원생활문화센터에 민간위탁금 교부 외에는 추진 중인 사업은 없다. 지동 창룡마을 창작센터의 시설유지 관리비는 지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출하며 시에서는 교부금이 없다.

향후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대한 시의 계획은 없으며, 민간에서의 요청도 없는 상황이다.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 자치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대한 필요치 않다고 인식하는 실정이다.

수원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생활문화 관련 정책은 연 3,000만원 예산으로 운영하는 수원문화클럽 활성화 사업이다. 수원문화클럽 활성화 사업은 크게 3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원문화클럽 소속 동호회 임원진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수원문화클럽 리더스 데이 개최, 수원문화클럽 연합공연 개최, 수원문화클럽 찾아가는 공연 개최이다.

수원문화클럽 리더스데이 개최는 수원문화클럽 소속 38개 동호회 대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원문화클럽 운영방안과 향후 계획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동호회 운영 관련 토의와 수원문화클럽 연합공연의 진행 및 홍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리더스데이는 연 1회 개최하고 있다. 또한, 연 1회 소속 동호회들의 합동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수원문화클럽 소속 동호회 23팀과 다문화 동호회 2팀의 합동공연이 진행되었다.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연 1회 찾아가는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을 찾아 한국무용, 해금, 코믹마술 등을 공연하였다. 현재로서는 연 1회씩 진행하는 세가지 세부 사업이 수원시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수원시 차원에서 수립한 수원시 생활문화진흥에 대한 종합적 계획과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며 생활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제2절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

현재 수원시에 소재한 생활문화센터는 수원생활문화센터, 지동 창룡마을 창작센터, 경기 생활문화센터 등 총 3곳이다. 수원생활문화센터는 수원문화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동 창룡마을 창작센터는 지동주민자치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권선구 서둔동,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에 조성한 경기생활문화센터는 경기도에서 조성한 생활문화센터이며, 경기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에 소재한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공간 구성 등을 살펴보고 운영 담당자와 인터뷰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질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현황 파악을 위한 인터뷰 질문

구분	주요 질문
1.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진행과정	1-1. 기존 시설에서 생활문화센터로 변경, 조성 추진 과정 1-2. 기본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센터 운영 방향, 비전 및 목표</li> <li>- 각 생활문화센터 공간 구성(설계 방향),</li> <li>- 예산 규모와 출처, 상근 실무 인력 운영 및 역할 등</li> <li>- 센터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li> <li>- 기획 과정에서 문화코디네이터와 시민의 역할</li> <li>- 여타 문화기반시설(주민센터 운영프로그램, 각종 문화센터)과의 차별점 설정</li> </ul>
2. 지역과 생활문화센터	2-1. 동네 내력과 특성, 지역성. 주민들의 성향이나 취향 차이 2-2. 생활문화센터 공간의 내력과 특성, 고유성 2-3. 센터의 수용력, 주민 인지도, 주민 접근성
3. 이용자 특성	3-1. 일일 방문자 수, 방문 요일, 방문 시간 3-2. 주 이용자 특성 - 세대, 성, 거주기간, 주민조직 활동 여부 3-3. 지역 주민들의 센터 이용 패턴(방식), 이용자들의 태도 3-4. 생활문화센터 홍보 방안 - 방문 빈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4. 시민들의 센터 운영 개입 정도	4-1. 프로그램 기획, 운영 규칙 제정(운영위원회 구성) 등 4-2.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거나 연결하는 운영방법 4-3. 주민들의 자율성을 성숙시키는 운영방법
5. 동호회 간 네트워크 프로그램	5-1. 이용자 간 관계 맺음 정도: 센터 내 네트워크 방식 (만남 및 교류 프로그램, 동호회 활성화 정도) 5-2. 동호회 간에 모임(친교) 프로그램(동호회 정보 공유) 5-3. 네트워크 주관행사 또는 지역행사, 축제 프로그램 현황과 참여 정도 5-4. 동호회 간 협업 작품 창작, 인적 교류활동
6. 현 센터의 문제점 및 한계	6-1. 그 간의 갈등 사례 6-2. 도출된 문제점들, 한계점으로 인식하는 것들 6-3. 생각하시는 대책 방안

## 1. 수원문화원 수원생활문화센터

수원문화원 수원생활문화센터는 1971년 개원한 수원시민회관 건물에 위치해 있다. 수원시민회관은 당시 많은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로 기능하다가 점차 시설은 노후화되어가고 시민회관 외에 전문적이고 다양한 문화시설이 만들어지며 수원시민회관의 새로운 역할과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수원시민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수원문화원의 방안은 아마추어 시민들이 노는 문화놀이터인 수원생활문화센터 조성이었다.

수원문화원 수원생활문화센터는 총 조성 면적 3,312㎡로 다른 생활문화센터와 비교하여 그 규모가 큰 축에 속한다. 전체 4층 규모로 구성되어 1층은 방음시설이 완비된 소리마당, 2층은 무용과 댄스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마당, 3층은 세미나와 소공연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휴게 공간인 어울림 마당이 있으며, 4층은 도예와 미술활동을 위한 공간과 재봉틀을 설치하여 의상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생활문화센터에는 370여석 규모의 대강당이 있어 대규모의 각종 공연과 발표회, 영화 상영이 가능하다.

<표 3-2> 수원생활문화센터 공간 구성

시설명	용도	구성	비고
소리마당 1F	기악, 타악, 밴드 등 소리창작 활동을 위해 조성된 생활문화공간으로서 방음시설 완비	소리마당 1	20인 이상의 동호회 및 이용자를 위한 공간
		소리마당 2	10인 이하의 소모임을 위한 공간
놀이마당 2F	전통무용, 현대무용, 댄스 퍼포먼스 등의 창작활동 공간	놀이마당	10인 이상의 이용자를 위한 공간으로서 마루바닥 및 거울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울림마당 3F	세미나, 회의, 소공연, 휴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어울어지는 열린 공간	다목적실 (세미나+ 소공연장)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회의실 및 세미나실로 활용되며, 때에 따라서 소공연장으로 활용 가능
		어울림마당	이용자 중심의 다용도 커뮤니티 휴게공간
창작마당 4F	미술, 공예, 도예, 서예, 의상, 독서 토론, 연극 등의 창작활동을 위한 다용도 생활문화 공간	창작마당 1	도예 및 미술 활동을 위한 공간 전기가마 구비
		시민의상실	의상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재봉틀 구비

2017년에 자체적으로 이용자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주중 5일간 2,921명이 방문하였다. 이중 50대가 45.7%, 60대가 51.5%, 여성이 9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수원생활문화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은 공간 대관, 민요와 풍물, 도예 등의 문화예술 강좌 프로그램, 지역 주민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 프로그램 등이다.

수원생활문화센터에는 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오는 문화예술 강좌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된 동호회들이 활동하고 있다. 2015년부터 3년 이상 지속된 강좌 프로그램 만해도 경기민요반, 규방공예반, 노래 부르기반, 도자기 공예반, 맥간공예반, 모듬북반, 사물놀이반, 서예반, 전통(한복)의상 만들기반, 하모니카반, 한국무용반이 있다. 연말마다 문화원 자체 프로그램인 ‘수원사랑 큰잔치’를 통해 문화원 동호회 공연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는 1989년부터 이어져오는 연례행사이다.

<표 3-3> 수원생활문화센터의 문화예술 강좌 프로그램

2015년	2016년	2017년
경기민요반	경기민요반	경기민요반
규방공예반	규방공예반	규방공예반
꽃꽂이반	노래부르기반	노래부르기반
노래부르기반	도자기공예반	도자기공예반
도자기공예반	맥간공예반	맥간공예반
맥간공예반	모듬북반(초급)	모듬북반(초급)
모듬북반	모듬북반(중급)	모듬북반(중급)
사물놀이반	사물놀이반	사물놀이반
서예반	서예반	서예반
서예반(분원)	서예반(장안구분원)	서예반(장안구분원)
전통(한복)의상만들기반	전통(한복)의상만들기	전통(한복)의상만들기
하모니카반	하모니카반	하모니카반
한국무용반	태평소반	태평소반
	한국무용반	한국무용반
		오카리나
		사계절봉사회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검정고무신)
		사진반
		여행영어반
		건강 강좌반(예정)

오래된 역사성을 지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다수 동아리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수원생활문화센터의 강점이지만 이에 따라 이용자가 5~60대 여성으로 한정되어있고 프로그램의 내용과 공간 운영 방식이 고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전부터 진행해 온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를 일순간에 폐강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오래된 역사성이라는 장점은 활동의 관성화라는 약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후 아직까지는 기존 시설의 운영 방식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기획자가 주 이용자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여 기존 활동의 맥락에 새로운 자극이 되는 기획 프로그램을 시도함으로써 해소해 나가야한다. 하지만 조성 면적 3,312㎡, 11개 공간을 담당하는 인력이 단 한명에 불과하여 담당자가 현재 공간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업무에 한계를 겪고 있다. 담당자 인건비가 포함된 생활문화센터 연간 예산이 8천만원인 여건 상 새로운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거나 주 이용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센터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를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의 주민으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야간과 주말 운영이 가능해야 하지만 담당자 1인에게 인정되는 초과근무 시간은 월 16시간에 그쳐, 담당자의 희생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조성까지는 국비와 시비의 지원으로 가능하였으나 이후 주민들이 자치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까지의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전략의 부재로 대관 등 시설 중심의 운영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림 3-1> 수원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전경 및 내부시설



## 2. 지동 창룡마을 창작센터

수원 화성의 남문과 창룡문 사이 성벽 외곽에 인접한 지동은 오랜 기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이 제한된 낙후된 구도심이다. 지동 창룡마을 창작센터는 대중목욕탕을 개조하여 조성하였다. 지동에 오래 산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 목욕탕과 관련된 추억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장소였으나 목욕탕 영업은 2004년에 종료되었다. 건물 소유주는 목욕탕을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려 했으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건축을 할 수 없었다. 이후 목욕탕은 10여 년간 방치되어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는 등 흉물이 되었다가 이를 시에서 매입하여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게 되었다.

한편, 2011년부터 현 지동 창룡마을 센터장이 지동 마을에 벽화 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왔는데, 벽화 작업을 위해 모인 자원 봉사자들이 모이고 휴식할 공간이 없었고 벽화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모아둘 공간이 없어 벽화 작업의 베이스캠프 기능을 하는 공간이 필요했다. 또, 지동 마을은 고령화되어 있는 낙후된 주거지역인데, 마을 노인들에게 맡겨진 어린 아이들이 많았다. 이 아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2016년 4월 개관한 지동 창룡마을 창작센터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하1층은 15평 정도의 공간에 소음을 내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용도 동아리방으로 조성하였으며, 1층 북카페는 주민들의 회의 공간이나 벽화 작업자들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다. 1층 북카페 옆 공방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지공예 수업이 열린다. 또, 공구 도서관을 마련하여 전동 드릴, 그라인더, 타일 커터기, 몽키 스페너 등 100여 가지 공구가 구비되어 있다. 500원에서 2,000원의 비용으로 대여할 수 있다. 2층의 다목적 홀은 전문 작가들을 초청해 기획전을 여는 갤러리로 활용하고 있다. 3층은 작가들의 작업실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지동 마을의 벽화를 중심으로 지동 마을을 알리기 위한 ‘우리 마을 자랑쟁이’ 해설 교육, 한지 공예 수업,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월 1회 플라마켓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동호회가 결성되진 않은 상태이다.

지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전기 요금 등 시설 유지 관리 예산과 2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예산 지원 외에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 지동 창룡마을 창작센터 센터장의 인터뷰 결과 사업 예산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외 센터장은 무임금으로 센터를 총괄 운영하고 있다. 수원생활문화센터와 마찬가지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후 센터의 활성화 과정까지 적절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발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3-2> 지동 창릉마을 창작센터 전경 및 내부시설





### 3. 경기생활문화센터

경기생활문화센터가 위치한 부지와 건물은 1907년 수원시 서둔동 일대에 조성된 서울대 농생대가 2003년 서울로 이전하면서 13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이 부지에 ‘경기상상캠퍼스’를 조성하여, ‘경기청년문화창작소’, ‘경기생생공화국’와 ‘경기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한다. 2016년 6월 개관한 경기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연령별, 대상별 다양한 프로그램(강연 및 워크숍, 공방 레지던시 등) 운영, 지역민을 위한 자율학습 공간 및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모두의 놀이터’로서의 가치를 실현을 목표로 한다.

경기생활문화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주민 공동체 공간, 어린이 책 놀이터, 손사래 공방, 2층에는 학습 공간, 마루 공간, 방음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어린이 책 놀이터는 책장으로 벽을 만들어 카페와 분리하고 그 안에 소파를 놓아 아이들이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이 책 놀이터는 3~5세 자녀를 둔 엄마들이 모여 아이들과 그림책 놀이, 동화 구연 등을 함께하며 좋은 놀이를 연구하는 엄마들의 소모임이 형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위한 학습 공간과 회의, 세미나 등을 열거나 자율적인 형태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다용도의 개방형 공간을 구성하였다.

경기생활문화센터의 특화 공간 중 하나는 청소년 문화공간이다. 어른의 입장이 금지되는 오로지 청소년만을 위한 이 곳에서 아이들은 영화를 보거나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또, 손사래 공방 5개에서는 가죽, 나무, 향기와 색 등을 이용해 생활 공예품을 만드는 이들과 주민들이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표 3-4〉 경기생활문화센터 공간 구성

시설명	용도	비고
어린이책놀이터 1F	어린이들이 책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13세 미만 어린이와 부모 전용 공간
커뮤니티 공간 1F	이용자들의 만남 공간이자 이벤트성 프로그램 진행 공간	
청소년 연습실 무어저경 2F	연극, 댄스동아리 등 몸을 쓰는 청소년 동아리 전용 문화예술공간	청소년 전용 공간, 온라인 신청 승인 필요
무궁화살롱 / 딸기살롱 2F	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으로 구성된 학습 모임 및 지역 내 활동 동아리들의 모임 공간	5인 이내 사용 온라인 신청 승인 필요
작은아지트 2F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학습 공간	수용인원 4인 선착순 자율 이용

경기생활문화센터는 장르 예술 활동 중심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문화로서의 가치에 주목하여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문화 자원을 발굴하는 작업과 함께 경기생활문화센터가 위치한 장소인 농생대 부지 환경의 성격을 살려 도시 농업이나 생태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생활 속에 기술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장인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발굴된 장인은 인근 서호중학교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생들과 공동 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도록 매개하고 있다. 또, 경기생활문화센터 주변에는 여전히 울창한 숲이 유지되고 있어 이 숲을 탐방하는 ‘비밀의 숲 탐험대’, ‘도시 양봉가’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요리, 목공, 수공예 등의 장르 예술을 넘어 생활기술을 재해석하여 표현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6년 6월 개관하여 조성 준비와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올해 센터 담당 인력을 4명으로 늘려 센터 고유의 프로그램 기획과 지역 네트워크에 주력하였다. 내년에는 지역과의 접점을 늘려가는 시도와 함께 경기도의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로서 플랫폼 역할을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생활문화센터 매개자 등 인력 양성과 도내 생활문화센터 간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프로그램 참여 없이 평일에 이용하는 사람은 50명 정도이고 주말에는 200명 정도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월 3~400명 정도 방문하며, 도합 월 1,500~2,000명 정도가 경기생활문화센터를 찾는다. 또, 8개 동호회가 경기생활문화센터를 기반으로 활동 중이다. 경기문화재단의 문화행정 정규직 직원 1명과 계약직 3명이 경기 생활문화센터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 예산은 1억 4천 5백만 원이다. 센터 규모에 비해 충분한 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열악한 타 생활문화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인력과 예산이 있기에 개관 초기임에도 경기생활문화센터만의 콘셉트가 있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향후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중에만 운영하는 여타 생활문화센터와 달리 경기생활문화센터는 토요일에도 운영이 가능하다.

〈표 3-5〉 경기생활문화센터 2017 생활문화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명	내용
어린이 프로그램	그림책 수다	구연동화와 함께 진행되는 창의적인 독서놀이 프로그램
	몸맘이야기	뛰놀며 몸으로 표현하는 무용 프로그램
	꼬마 도시양봉가	꿀벌을 위한 벌통과 정원을 조성하고 관찰하며 가꾸는 프로그램, 꿀벌과 꿀벌을 둘러싼 환경 교육
	비밀의 숲 탐험대	경기상상캠퍼스의 숲을 무대로 지도와 나침반을 활용하여 코스별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는 생태 숲 프로그램
	가지가지 워크숍	경기상상캠퍼스의 숲 이야기를 드로잉과 메이킹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노동의 맛	노동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청소년의 메이커스 프로그램 목공, 직조 등 다양한 주제로 현장수업을 진행
	청소년 취재단	경기상상캠퍼스 내 다양한 소식을 취재하여 상상캠퍼스 뉴스레터 기재
	쉐프씨	장인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지역 장인들과 함께 진행하는 쿠킹 클래스
가족 프로그램	꼬마 농부의 식탁	안전한 밥상을 만드는 생태환경/먹거리 프로그램 경기상상캠퍼스 숲 속에서 채소를 수확하고 요리하는 가족 프로그램
성인 프로그램	푸른지대 자전거 라이딩	자전거를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기본교육을 진행, 전문가와 함께 경기상상캠퍼스 주변을 라이딩
	낭만가죽&향기	빈티지 가죽, 디자인 캔들을 직접 만드는 생활공방 프로그램
	사슴나무	퀼트, 컨트리인형, 프랑스자수, 재봉틀로 하는 바느질 프로그램
	만물작업소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을 만들어보는 소규모 목공
	로즈래빗	크로셰와 플라워 수공예
	우드버닝	목공과 인두화를 결합한 우드버닝 프로그램
주민협업 프로그램	장인발굴 프로젝트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기술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거나 살아가면서 터득한 생활의 기술, 노하우, 지식 등 자신만의 생활철학과 기술을 공유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을 발굴하는 프로젝트
기획 프로그램	밤비노	이야기꾼의 공연과 체험이 함께하는 어린이날 행사
	생활문화축제 '활생'	'활생'은 지역장인과 생활문화 동호회, 지역주민, 2017 경기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만드는 축제
	한뼘전시	생활문화 이야기와 프로그램 현장 사진, 결과물 전시

<그림 3-3> 경기생활문화센터 내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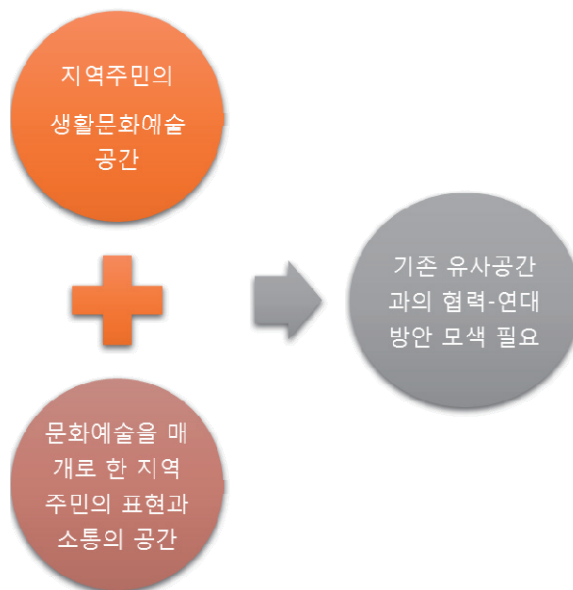


### 제3절 수원시 생활문화 유관 문화시설

수원시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이 다수 건립되어 있다. 이 시설들을 수원시 생활문화 유관 문화시설로 묶을 수 있다. 이러한 시설에는 수원시 평생학습관, 수원 영상미디어센터, 23개 공공도서관(어린이 도서관 포함), 42개 주민자치센터, 문예회관 2개소와 13개 등록공연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생활문화센터의 신규 설립과 네트워크만으로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꾀하기 보다는 생활문화센터의 조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능과 수요들을 기존의 수원시 생활문화 유관 문화시설과의 협력과 연대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문화센터로 명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및 기관과 생활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여 함께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또, 이들 유관 문화시설과 연계하면 생활문화센터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동호회나 연합 동호회 등의 발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생활문화 유관 시설들은 각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이들 기관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인 수원시민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어떤 창작행위를 하고자 하는 시민이 함께할 사람, 강사, 예술가, 기획자를 필요로 할 때, 생활문화 유관 문화시설과의 네트워크는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림 3-4> 수원시 생활문화 유관 문화시설과의 연대



수원시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호회’ 중 생활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와 수원문화재단이 각 기관에 조사한 동호회 현황 결과 수원에서 활동 중인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는 280여개로 추정된다. 이들 동호회가 형성되는 주된 방식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같은 각 기관의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 이후 형성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동호회 활동 기반이 되는 문화시설은 수원시 생활문화 유관 문화시설로 꼽은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노인복지관 등이라는 사실 역시 유추할 수 있다. 활동 중인 문화예술 동호회와 조성된 문화시설 등 현재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시민문화예술 자원들과의 네트워킹과 생활문화로의 연대가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의 시발점인 것이다.

<그림 3-5> 수원시 생활문화 유관 문화시설 현황



〈표 3-6〉 수원시 기타문화기반시설 현황

연번	시설명	설립일자	운영기관명
1	수원영상미디어센터	2014. 03. 2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 (인계동)
2	수원시 평생학습관	2011.1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 (우만동)

자료: 2016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표 3-7〉 수원시 청소년 문화의집 등 현황

연번	시설명	개관일자	운영기관명
1	수원청소년문화센터	2000. 01. 2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인계동)
2	광고청소년수련관	2010. 01. 0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17번길 24(이의동)
3	권선청소년수련관	2010. 01. 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01번길 42(권선2동)
4	장안청소년문화의집	2005. 12. 2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28-7
5	영통청소년문화의집	2002. 11. 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33(영통동)

자료: 2016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표 3-8〉 수원시 문예회관 현황

연번	시설명	개관일자	연면적 (㎡)	객석 수	공연장 면적(㎡)	운영기관명
1	경기도문화의전당	1991.06.28	34,982.0	1,542	13,295.0	(재)경기도 문화의전당
2	수원SK아트리움	2014.03.06	14,904.0	950	5,024.0	(재)수원문화재단

자료: 2016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lt;표 3-9&gt; 수원시 등록공연장 현황

연번	시설명	개관일자	공연장 면적(㎡)	무대면적 (㎡)	객석 수	구동무대 기계구수
1	수원제1아외음악당	1995.11.16	3228	348	796	14
2	수원제2아외음악당	2004.10.22	550	264	-	10
3	수원sk아트리움대공연장	2014.03.07	5024	864	950	44
4	수원sk아트리움소공연장	2014.03.07	1234	170	300	19
5	수원시민회관	1970.12.01	3207	144	458	16
6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1991.06.02	13295	1199	1542	72
7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 소극장	1991.06.02	3157	340	502	36
8	경기도문화의전당 신나는 야외극장	1991.06.02	2140	140	400	0
9	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	1992.12.06	4501	452	525	57
10	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1992.12.06	259	37	193	12
11	한누리아트홀(장안구민회관)	2006.06.30	1789	129	499	19
12	수원월드컵광장 상설무대	2006.04.27	300	138	300	0
13	KBS 수원아트홀	2008.07.04	439	182	190	6

자료: 2016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표 3-10〉 수원시 공공도서관 현황

연번	시군구	도서관명	개관년도	부지(㎡)	연번(㎡)	열람석(석)
1	수원시 권선구	경기평생교육학습관	2008	4,958.70	14,900.13	1,154
2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1970	2,216.00	2,360.00	338
3	수원시 영통구	반달어린이도서관	2004	428.00	313.00	120
4	수원시 팔달구	화홍어린이도서관	2005	547.00	355.00	100
5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2006	2,634.00	4,587.00	235
6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버드내도서관	2014	5,653.00	4,000.00	550
7	수원시 권선구	수원한림도서관	2014	7,156.00	2,508.00	453
8	수원시 권선구	지혜샘도서관(어린이)	2005	4,107.00	2,447.00	516
9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도서관	2014	8,637.00	4,930.45	616
10	수원시 권선구	희망샘도서관	2006	1,848.23	417.00	137
11	수원시 영통구	광교홍재도서관	2014	3,057.00	9,824.73	981
12	수원시 영통구	바른샘어린이도서관	2005	1,612.50	2,666.07	544
13	수원시 영통구	사랑샘도서관	2006	7,929.00	542.00	63
14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영통도서관	1999	9,572.00	4,136.00	207
15	수원시 영통구	태장마루도서관	2011	4,676.00	3,969.00	558
16	수원시 장안구	대추골도서관	2014	3,460.00	2,692.00	390
17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2006	4,530.00	4,480.00	251
18	수원시 장안구	슬기샘도서관(어린이)	2005	5,100.00	2,565.00	471
19	수원시 장안구	일월도서관	2015	7,961.00	3,905.00	407
20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선경도서관	1995	11,830.00	8,312.00	584
21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중앙도서관	1980	3,438.00	1,369.00	461
22	수원시 팔달구	창룡도서관	2014	5,123.00	4,337.00	663
23	수원시 팔달구	한아름도서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2000	55,661.00	555.00	74

자료: 2016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제4장 국내외 생활문화공간 운영 사례분석

### 제1절 사례조사 설계

#### 1. 사례조사 대상 선정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다양한 생활문화 공간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사례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유형의 생활문화 공간들을 검토하였다. ① 현재 개관하여 운영 중인 87개 생활문화센터 ② 역사가 깊고 인지도가 높은 국외 생활문화 공간, ③ (재)생활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식적인 생활문화센터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 중인 생활문화 공간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도시 내에 5개소 이상 생활문화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읽어내고자 하였다. 이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 중 ① 수원시의 특성과 유사성을 지닌 생활문화센터 ② 수원시 생활문화센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 ③ 중요한 특성을 지녀 수원시에 참고가 되는 생활문화센터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중심 기준 하에 6가지 세부 기준을 세우고 각 기준에 부합하는 유형을 설정하였다. 여러 생활문화센터 중 이 기준에 다수 부합하는 사례이면서 비교적 운영 기간이 긴 생활문화센터를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위 기준을 고려하여 전국의 87개 생활문화센터를 검토한 결과, 부산광역시의 두송 생활문화센터, 범일 생활문화센터,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양정1동 생활문화센터, 전주시의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인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를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간 탐방과 운영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역사가 깊고 인지도가 높은 국외 생활문화 공간으로 독일의 사회문화센터와 일본의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두 사례 모두 국내 생활문화 공간보다 역사가 오래 되었고 사회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의 현실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독일의 사회문화센터와 일본의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공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직접 참여도가 높은 생활문화 공간으로 수원시 생활문화센터의 이상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1〉 생활문화공간 사례연구 공간 선정 기준

중심 기준	세부 기준	유형
1. 수원시의 특성과 유사성을 지닌 생활문화센터	① 도시형 생활문화센터 (센터 주변 주거환경)	1) 아파트 단지 2) 구도심 지역
	②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후보 공간의 특성과 유사하거나 조성 가능한 공간을 리모델링한 생활문화센터	1) 주민자치센터 2) 지역 문화시설 3) 기타 유휴공간
2. 수원시 생활문화센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	③ 주민자율형 운영 생활문화센터	1) 공간 조성 2) 사업 기획 3) 운영 규칙
	④ 주민 이용이 활성화된 생활문화센터	1) 일상적 활성화 2) 네트워크 활성화
3. 중요한 특성을 지녀 참고가 되는 생활문화센터	⑤ 지역의 고유성을 담거나 특징적인 공간을 리모델링한 생활문화센터	1) 지역 맥락 2) 공간 내력 3) 공간 구성
	⑥ 주 이용자가 특화되어 있는 생활문화센터	1) 세대별 특화 2) 성별 특화 3) 계층별 특화

한편, 국내 생활문화 공간 중 (재)생활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조성되어 생활문화센터로 명명된 공간은 아니지만 다양한 사적 주체의 의지와 정책 사업의 결합으로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공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내에서 실현가능한 생활문화센터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사례로 ‘닷라인TV’와 ‘전주시민놀이터’, ‘문래예술공방’, ‘벌터마을 문화마실’, ‘생활적정랩 빼꼼’을 선정하여 공간 탐방과 운영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4-2〉 생활문화공간 사례연구지 리스트

구분	소재지	시설명
국내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두송 생활문화센터
		범일 생활문화센터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양정1동 생활문화센터
	전주시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인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해외 생활문화 공간	독일	Kulturfabrik Moabit Lehrter Str. 35 eV
		Kurturzentrum cuba
		LAndsarbeitsGemeinschaft Soziokultureller Zentren Nordrhein-Westfalen e.V.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국내 생활문화 공간	서울특별시	문래예술공방
		닷라인TV
	전주시	전주시민놀이터
	수원시	벌터마을 문화마실
		생활적정랩 빼꼼

## 2. 사례연구 내용

국내의 생활문화 공간 탐방과 운영자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문화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지역과 공간의 내력, 접근성, 주민 인지도 등 지역 내 입지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공간 구성의 특징적 요소, 거점형-생활권형 등 생활문화센터의 유형별 공간 구성 차이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② 생활문화공간의 주 이용자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대별, 성별로 이용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용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자 했다. 또, 이용자가 가진 경제적 자원과 시간 자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③ 이용자 참여 동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용자들이 생활문화공간에서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④ 생활문화공간 이용자의 자발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생활문화 활동에 대해 표출하고 그것을 생활문화공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획과정에서 이용자의 역할, 공간 운영위원회의 참여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⑤ 생활문화공간의 자생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생활문화공간의 예산 규모와 출처, 상근하는 실무 인력의 운영과 역할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⑥ 생활문화 활동을 통한 공동체 형성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생활문화공간 내에서의 네트워크 방식, 이용자 간 만남과 교류 프로그램, 동호회 활성화 정도나 동호회 간에 모임 프로그램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센터 외부와의 네트워크 방식, 지역 행사나 축제 등 프로그램 현황과 참여 정도, 사회공헌활동 정도, 지역의 이슈에 참여 정도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생활문화센터 운영 방향, 향후 비전 및 목표나 공간의 문제점이나 한계로 인식하는 점들에 대해서 파악하여 생활문화공간이 기존 문화시설의 목적·기능·공간·운영 방식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표 4-3> 생활문화공간 사례연구 주요 내용과 질문

내용	질문
1. 생활문화공간의 지역적 특성과 공간 내부 구성	지역적 특성과 지역 내 입지
	공간의 내력과 공간 구성의 특징적 요소
2. 주 이용자 특성	세대별, 성별, 경제활동인구 등 이용자 특성
	이용자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구속시간
3. 이용자 참여 동기	즐거움과 아름다움, 인정과 명예, 경제적 보상 등
4. 자발성의 정도	주민은 원하는 생활문화 활동을 얼마나 표출하는가, 실현 가능한가
	주민이 어느 정도 운영에 개입하는가(소비자 주체, 시민 주체)
5. 자생성의 정도	운영 실무 인력, 운영 예산 규모, 운영 예산의 출처 등
6. 공동체 형성의 정도	센터 내 네트워크 방식 (만남과 교류 프로그램, 동호회 활성화 등)
	센터를 거점으로 센터 외부와의 네트워크 방식 (지역 축제, 지역 활동, 지역 이슈에 대한 개입 등)

## 제2절 국내 생활문화센터 사례

### 1. 부산시 소재 생활문화센터

#### 1) 부산시 생활문화정책 개요

부산시는 주로 전문 예술가 중심의 문화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13년부터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활동 참여를 위한 생활문화정책을 시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부산시 생활문화정책은 크게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중심으로 기획, 추진하였다. 이를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에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시 문화예술과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하드웨어 구축을 담당하고 부산문화재단은 동호회 활성화 지원과 네트워킹 등 소프트웨어 구축을 담당한다.

부산시의 생활문화센터 2017년 현재 8개소가 개관 운영 중에 있으며, 7개소가 조성 공사 중에 있다. 자치구에서 조성 대상 공간을 발굴하여 시에 신청하면 시는 검토 후 (재)생활문화진흥원에 신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리모델링 예산은 국비와 시비, 지방비가 매칭되어 마련되며, 조성된 생활문화센터의 운영비는 자치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가 근대건축물을 매입하여 각 지역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지원과 생활문화센터 간 네트워킹 역할을 하는 광역생활문화센터를 조성 중에 있다. 광역생활문화센터는 각 지역 생활문화센터에 필요한 생활문화 매개자 및 예술 인력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생활문화동아리 연합회 네트워킹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부산문화재단은 공간 조성 외에 생활문화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2차례 부산시 생활문화 동호회 전수조사를 통해 582개 생활문화 동호회를 발굴하여 400여개 동호회가 참여하는 지역별, 장르별 생활문화 동호회 연합회를 구성하였다. 16개 구군별, 12개 문화예술장르의 생활문화연합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생활문화연합회 광역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동호회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또, 조직된 지역별, 장르별 생활문화연합회가 주도하여 생활문화예술제를 개최하며 부산문화재단은 이를 지원한다. 2016년에는 8개구 생활문화연합회와 6개 장르 생활문화연합회가 각 지역에서 생활문화예술제를 개최하였다. 향후 부산평생인재교육원과 연계하여 평생학습 개념과 예술교육을 연계하여 생활문화 동호회를 생성할 계획이며, 행정 단위에서도 각 자치구 단위에서 생활문화 담당자 간의 현황과 의견을 교류하는 네트워크를 조직할 계획이다.

〈표 4-4〉 부산시 주요 생활문화 사업

담당	주요 사업
부산시청 문화예술과	각 자치구와 함께 생활문화센터 공간 발굴
	진흥원과 연계하여 생활문화센터 공간 조성
	2017년 현재 8개소 개관 운영, 2017년 현재 7개소 조성 공사 중
	거점 역할을 하는 광역 생활문화센터 조성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사업본부	부산 지역 동아리 전수조사 수행
	각 자치구별, 장르별 동아리연합회 조직
	동아리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예술제 지원
	부산평생인재교육원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추진 중
	자치구 단위에서 생활문화 담당자 간의 네트워크 조직 추진 중
	생활문화활동 홍보 플랫폼 기획 중

## 2) 두송 생활문화센터

### (1) 개요

2015년 5월 개관한 두송 생활문화센터는 아파트 단지 초입에 위치한 상가 내 폐목욕탕을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조성하였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과 밀접한 위치에 자리하였으나 부산의 남서쪽 끝, 산의 끝머리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거주민과는 밀착되어 있지만 외부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리적 여건이다.

공간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상 1층은 사랑방 갤러리와 게시판,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랑방 갤러리는 전시 가벽, 전시 좌대, 전시용 레일 후크, 조명 등이 설치되어 전시 기능을 수행하면서 테이블을 배치하여 주민들 간의 마주침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또 외부로 이어지는 테라스는 휴식 공간이지만 테라스의 폴딩 도어를 접으면 테라스를 무대로 갤러리를 관객석으로 배치하여 간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상 2층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들과 강의실이 있는데, 대형 거울, 이동형 무용바, 댄스 플로어, 음향 시설을 설치하여 전신을 사용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응할 수 있다. 지하 1층에는 동아리실과 음악실, 다목적홀로 이루어져 있다. 음악실에는 드럼 세트와 앰프, 키보드, 마이크, 스피커, 음향 콘솔이 구비되어 있으며, 다목적



홀은 무대와 스크린, 음향 시스템 등이 설치되어 동호회 등의 발표 공간으로 활용되며, 영화 상영 프로그램에 활용한다.

## (2) 운영현황

두송 생활문화센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일요일과 월요일, 공휴일은 휴무일이다. 이용자들은 주로 프로그램 수강, 영화관람, 대관을 위해서 방문한다. 최근에는 대관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많은 편인데 지역주민들, 아마추어 예술가들, 지역 동호회활동을 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한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4개월 주기와 1년에 3기수를 운영한다. 실버 건강교실, 도자기, 차밍 댄스, 하모니카, 퀼트와 홈패션, 리본&인형 공예, 우쿨렐레 등인데 프로그램은 매 기수마다 주민들의 반응과 여건에 따라 소폭 변화하고 있다. 수강료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수강생이 준비하는 물품에 따라 재료비가 지출된다.

센터 일일 평균 방문자 수는 개관 첫 해 2~30명, 두 번째 해는 50명, 세 번째 해는 6~70명 수준이다. 주 이용자층의 연령대는 전 연령층이 다양하게 이용하는 편이다. 다만 젊은 남성의 이용은 저조하다. 주로 이용하는 직업군은 주부가 특히 많은 편이다. 주말에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이용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소득층도 교육에 참여하고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있다.

## (3) 특징 및 시사점

센터 운영은 문화예술전문인력으로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1명(센터장)과 기간제 공무원 1명이 전담하고 있다. 인력이 많지 않아 센터장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 센터 홍보의 경우 센터장이 직접 인근 아파트 단지와 인근 학교와 복지관 등 관련 기관을 돌면서 전단지 배포하고 있다. 연간 운영예산 역시 인건비를 제외하고 2,700만원 대에 그쳐, 대부분의 예산을 공공요금 등 시설유지비와 프로그램 강사료로 지출하고 있다.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은 센터장이 일임하고 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차별화하여 기획, 운영하려 하지만 주민들의 수요와는 맞지 않아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기획에서의 차별화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아직 주민들에게 생활문화라는 개념이 생경하여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욕구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보다는 대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센터를 활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프로그램 수를 줄이고 동아

리 대관을 늘리면서 주민들의 문화기획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으며 대관활용을 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15 생활문화센터 우수사례로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문화 시설 등 문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문화소외지역이면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 조성된 생활문화센터이다 보니, 아직 다양한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공간을 꾸려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문화 활동을 시작해가며 공간에 대한 애정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생활문화센터로서 초기 단계임에도 주민들의 센터 이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와 생활문화센터를 행정적 실적으로만 접근하는 태도가 있어 생활문화센터의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

<그림 4-1> 두송 생활문화센터 전경 및 내부



### 3) 범일 생활문화센터

#### (1) 개요

범일 생활문화센터가 자리한 지역은 좁은 골목길에 노후 주택이 밀집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노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지역이다. 범일1동과 범일4동의 통합으로 유휴 공간이 된 범일1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여 2016년 10월 4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1층에는 마주침 공간과 학습공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1층 마주침 공간은 마룻바닥과 전면 거울이 설치되어 무용 등의 프로그램 운영, 단체 모임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지하 1층에는 방음시설이 설치된 음악실을 운영하고 있다. 2층은 헬스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한편에는 테라스가 있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30년간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던 공간이기에 주민들의 행정 처리를 위한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 (2) 운영현황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관이다. 주말은 대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전 협조를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지역 그룹에서 음악회를 하는 등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 이들에게도 대관을 하고 있다. 이용객들은 주로 40대~60대 여성들이며 남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여성들은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하며 남성들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센터 프로그램으로는 어르신 건강교실, 요가교실, 난타교실, 라인댄스, 영어교실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대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지역 동호회 활동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동호회들은 대개 강좌 프로그램 수강 이후 조직되는데 현재 색소폰 동호회, 기타 동호회, 중국어 동호회가 조직되어 있다.

범일 생활문화센터의 일일 평균 방문객 수는 300여명 정도인데 이중 헬스장 이용 인원이 일일 평균 90~100여명, 민원 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인원이 일일 평균 100여명이다. 이를 제외하고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생과 연습실 대관 인원은 일일 평균 100여명 정도이다.

#### (3) 특징 및 시사점

범일동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이 담당 업무 중의 하나로 생활문화센터를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시설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자, 퇴직 공무원 노인일자리 인력을 시설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헬스장은 별도의 헬스트레이너를

시간제로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생활문화센터의 담당자가 주민자치센터 소속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순환보직제로 인해 생활문화센터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운영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중 하나로 생활문화센터를 담당하는 것이기에 전문적인 문화기획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운영예산은 공공요금과 시설관리비용으로 책정이 되어있다. 헬스장은 구의 예산과 헬스장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회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 사업비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예산과 회원들의 수강료로 이루어지고 일부는 외부 정책 사업에서 사업비를 가져와서 충당하고 있다.

범일 생활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있고 일부 프로그램(어르신 건강교실, 요가교실 등)은 생활체육협회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또, 평생학습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난타교실, 인도 춤 교실)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연계가 생활문화센터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생활문화센터의 확장력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형식과 내용의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개설하다보면 문화예술 활동이 틀에 박히게 될 우려가 있어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표현하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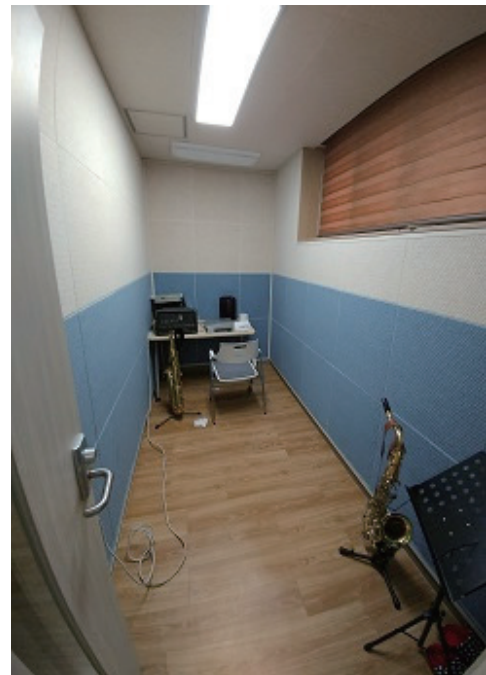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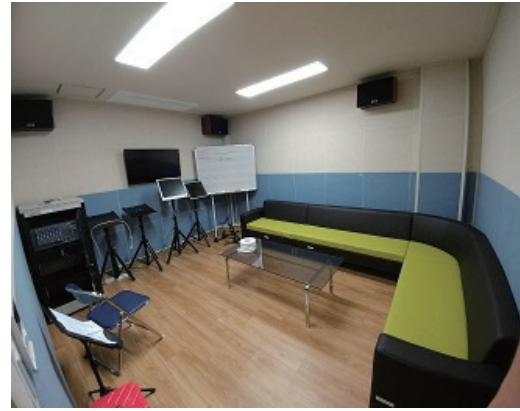
범일 생활문화센터가 위치한 범일동은 좁은 골목길에 노후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령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주변 환경 때문에 외려 거주 기간이 오래된 주민들이 많아 지역 조직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심으로 단기간에 주민 자율형 생활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주민들로 구성된 범일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센터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운영, 센터 이용 규범, 시설 관리 방안까지 필요한 사항과 운영 규정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이 주민자치위원회와 구 범일1동과 범일4동의 다양한 지역 단체에 고루 제안을 하고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다. 또한 범일 생활문화센터는 범일동 반상회가 열려 마을의 대소사를 논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생활문화센터가 가진 주민자치 커뮤니티 센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한정된 공공공간에 대한 이용 규범이 확립되지 않아 몇몇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자리 잡은 이용자들 사이에 강한 친밀성이 새로운 이용자에 대한 배타성으로 표출되고 연습공간 이용을 독점하려 하거나 개인 악기나 짐을 연습공간에 놔두는 등 공간의 사유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프로그램 이후 새롭게 결성된 동호회들이 생기면서 기존에 공간을 이용하던 주요 이용자와 마찰이 있어나고 있어 주민들 간에 공공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규범을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와 참여도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여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생활권 내에 새로운 유희공간을 찾아 추가적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 범일 생활문화센터 전경 및 내부시설



#### 4)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 (1) 개요

2016년 11월 1일 개관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는 1987년 준공된 상업시설 건물을 1997년에 매입하여 수영문화원이 운영하는 수영구 문화센터로 사용하였다. 43억 원을 들여 이를 다시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였다. 부산의 상징적 해양 관광지인 광안리 해수욕장과 광안대교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지상 5층 건물로서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문화센터라 할 수 있다.

1층은 행정부사실, 관광안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5층이 생활문화공간이다. 2층에는 다양한 작품전시가 가능한 전시공간인 바다갤러리, 바다전경을 보며 차를 마실 수 있고 무대설치로 활용도 가능한 어울림공간이 있다. 주민공동체 공간에 단차가 있는 간이 무대와 강연대, 투명한 접이식 문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였다. 각 연습실은 그 목적에 맞게 마루를 깔거나 흡음 재료를 사용하고 벽면 거울과 무용 바, 밴드 악기, 음향 시설, 공용 수납장 등을 구비하였다. 이동식 책상과 칠판 등을 구비한 창작실과 동아리방에서는 주로 그림, 공예, 독서 등 정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였고 공연, 강연, 발표회, 영화 상영회 등을 할 수 있는 88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을 조성하였다. 조성 전에 지역 연극 동아리의 자문을 받아 바닷물에 반사된 햇빛을 막기 위한 두꺼운 암막 커튼과 특수 연출이 가능한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시설 완성도가 높아 2017 시설 부문 우수 생활문화센터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2) 운영현황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는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일이다. 97년부터 수영구 문화센터로 운영되어 왔고 장소 접근성과 주변 경관 등 입지 조건이 좋고 중산층 거주 지역이라 이용 인원이 많다. 개관 후 3개월 동안 월 평균 대관 이용 152회, 문화강좌 208회, 이용자는 4,110명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

생활문화센터는 주로 문화예술 강좌 프로그램과 대관으로 쓰이고 있다. 강좌 프로그램은 기존 수영구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던 수영문화원의 문화강좌 프로그램 계승하였는데 생활문화센터로의 전환 이후에도 강좌 프로그램은 수영문화원에서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대관 공간으로는 바다갤러리, 밴드연습실, 댄스연습실, 마루연습실, 다목적강당이 있는데, 밴드 등 다양한 생활문화 동아리가 연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작품

전시가 이루어지고 동아리발표회, 시낭송회, 어린이집 학예발표회 등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기존 문화시설의 기능에서 더 나아간 프로그램 기획은 없는 상황이다. 향후 광안리 해수욕장과 센터 일대에서 열리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축제’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광안리 어방축제, 광대연극제 참여, 광안리 해변 야외무대의 상시 문화공연과의 연계를 계획하고 있다.

수영구 생활문화센터의 인력은 임기제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는데, 주로 대관과 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생활문화센터 대관 예약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를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동아리들이 서로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면 문화적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5) 양정1동 생활문화센터

양정1동 생활문화센터는 주민자치센터 동사를 신축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함께 조성하면서 2016년 2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센터는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의 건물로서 2층과 3층에는 주민자치센터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민원실과 동장실, 동대본부 등이 위치해있다. 지하1층에는 전면 거울이 설치된 마룻바닥의 다목적홀로 풍물 등 악기 연주나 무용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1층은 작은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대강당과 학습 공간, 5층에는 공동체 공방, 공동체부엌이 있다. 조성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봉틀, 다림대와 다리미, 물품 보관함 등이 구비된 공동체공방과 요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리실습실을 조성하였다. 한 번에 12명이 재봉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공방에서는 홈패션 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동 주민들이 신청하고 수강 차례를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

타 생활문화센터와 동일하게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위한 대관을 하고 있다. 주로 문화예술강좌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생활과학교실, 서예, 생활중국어, 한국무용, 캘리그래피, 네일아트, 요리교실, 홈패션, 드럼교실, 힐링건강제조, 노래교실 등이 운영되거나 운영됐었다.

시설 환경은 좋아졌지만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이 담당 업무의 일환으로 센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 관리의 측면이며 창의적인 생활문화 프로그램 기획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운영 시간도 주민자치센터의 보안과 안전문제로 인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의 생활문화 활동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림 4-3>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내부시설

구분	시간	월	화	수	목	금
4 / 5층 연습실	10:00~10:50	오기리(동) (영스튜디오)	한서대 (영스튜디오)	오기리(동) (영스튜디오)	오기리(동) (영스튜디오)	오기리(동) (영스튜디오)
	11:00~11:50	오기리(동) (영스튜디오)	한서대 (영스튜디오)	오기리(동) (영스튜디오)	오기리(동) (영스튜디오)	오기리(동) (영스튜디오)
	12:00~12:50	발라드스 (영스튜디오)	한서대(영스튜디오)	발라드스 (영스튜디오)	발라드스(영스튜디오)	발라드스(영스튜디오)
	13:00~13:50	발라드스 (영스튜디오)	한서대(영스튜디오)	발라드스 (영스튜디오)	발라드스(영스튜디오)	발라드스(영스튜디오)
	14:00~14:50	발라드스 (영스튜디오)	한서대(영스튜디오)	발라드스 (영스튜디오)	발라드스(영스튜디오)	발라드스(영스튜디오)
	15:00~15:50	발라드스 (영스튜디오)	한서대(영스튜디오)	발라드스 (영스튜디오)	발라드스(영스튜디오)	발라드스(영스튜디오)
	16:00~16:50	발라드스 (영스튜디오)	한서대(영스튜디오)	발라드스 (영스튜디오)	발라드스(영스튜디오)	발라드스(영스튜디오)
	17:00~17:50	발라드스 (영스튜디오)	한서대(영스튜디오)	발라드스 (영스튜디오)	발라드스(영스튜디오)	발라드스(영스튜디오)
	18:00~18:50	발라드스 (영스튜디오)	한서대(영스튜디오)	발라드스 (영스튜디오)	발라드스(영스튜디오)	발라드스(영스튜디오)
	19:00~19:50	발라드스 (영스튜디오)	한서대(영스튜디오)	발라드스 (영스튜디오)	발라드스(영스튜디오)	발라드스(영스튜디오)
	20:00~20:50	발라드스 (영스튜디오)	한서대(영스튜디오)	발라드스 (영스튜디오)	발라드스(영스튜디오)	발라드스(영스튜디오)





<그림 4-4> 양정1동 생활문화센터 전경 및 내부시설



## 2. 전주시 소재 생활문화센터

### 1)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개요와 특징

전주시는 기초지자체 단위로는 가장 많은 5개소 생활문화센터 운영 중이다. 5개소 모두 지역주민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던 문화의집을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에서 유사 기관의 지원 근거(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하는 부담과 예산 지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시 차원의 전략적 조치로 판단된다.

공간 역시 기존에 문화의집이 입주해있던 주민자치센터 건물의 한 층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다. 문화의집 지원 정책이 사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활문화센터로의 전환은 운영 중에 있던 문화의집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문화의집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에 그칠 여지도 있다.

생활문화센터 지원 정책은 공간 조성에 국한하기 때문에 현재 전주시의 생활문화센터들은 시의 문화의집 지원 예산으로 운영 중이다.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은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5개소 문화의집은 관장 간에 모임을 형성하여 생활문화센터의 상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표 4-5> 전주시 소재 생활문화센터 현황

개관시기	센터명	입주 건물
15년 9월 개관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삼천2동 주민자치센터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효자3동 주민자치센터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단독 건물
16년 3월 개관	인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인후1동 주민자치센터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우아1동 주민자치센터

## 2)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삼천 문화의집은 처음 개관한 2001년에는 전주시 직영으로 문화의집이 운영되었다가 2005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사단법인 전 통예술원 모악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다. 삼천문화의 집은 삼천2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2015년 9월에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는 공간 리모델링을 완료하였다.

공간은 공예체험 및 전시장소로 활용 가능한 야외마당, 프로그램 공개강좌 등을 진행 할 수 있고 문화 예술서적 및 잡지 등 담소를 나눌 수 있고 이동식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어 공간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시청각 기자재와 음향시설이 설치된 ‘쿵작쿵작 공간’, 강의실로 활용하는 ‘두근두근 공간’, 회의 및 각종 상설 및 체험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도란도란 공간’, 마루로 되어 각종 무용 및 문화 나눔 활동이 가능한 ‘왁자지껄 공간’, DVD관람 및 독서가 가능한 ‘뽕글뽕글 공간’, 전시공간인 ‘꿈꾸는 갤러리’가 있다. 이전에는 장르-기능이 규정되어 있는 공간을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변적 장치를 배치하였으며, 공간마다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하였다.

삼천 문화의집의 주변 행정권역은 삼천동과 평화동이다. 주변 지역은 새로 개발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도 일부 있지만 주로 오래된 구도심이다. 때문에 이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주민들이 많은 편이다. 삼천문화의집 주변은 상점가로 상가들이 많이 위치해있고 공방들이 많이 위치해 있다.

삼천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주로 이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경우가 많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두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문화에 맞는 문화적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문화의집을 대관하여 모임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의 다양한 모임이 삼천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의와 동호회 모임에서부터 지역의 비혼 여성 모임, 센터 인근 학원의 발표회까지 열리고 있다. 인근 사설학원의 발표회는 특정인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지만 이를 센터의 기획자가 조정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에 기여하는 방향의 프로그램으로 유도하고 있다.

문화예술 강좌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 대관 이외에도 센터 주위에 공방이 많은 특성을 활용하여 공방 작가들과 네트워킹하고 이들 작가의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공간을 센터 입구에 마련하였다. 또, 마을 축제도 개최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2,000명 정도 참여하는 규모가 큰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한편, 지역 주민들과 개발 이전에 이 지역에서 공유하던 농촌 문화를 발굴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농촌 놀이문화들을 발굴 보존하

기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이 놀이들을 직접 체험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삼천동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마을 이야기집’ 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지역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공동체 활동을 하는 등 삼천동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문화, 지역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림 4-5>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전경 및 내부시설



아직까지 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지역 주민이 직접적으로 센터 운영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센터의 문화기획자는 아직은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하는 활동을 기획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을 축제 등의 행사를 추진할 때 주민들과 마을기획단을 꾸려 진행하고 등의 방식으로 각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경험을 쌓으며 주민들이 점차적으로 자발적인 지역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잘 작동하고 있지만 운영상의 몇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대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으로 시설은 리모델링하였으나, 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활동 거점으로 발전해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미약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저임금 노동과 사업비 부족 등 센터 운영에 전반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센터의 운영자들은 외부의 공모 사업에 매달려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로, 정치적 개입 문제가 있다. 문화의집은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이라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 지역 주민의 문화 공간의 중립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문화센터 공간 운영 주체를 민간단체에 3년 수탁 계약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주체의 일괄적 교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센터 운영의 맥락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어 생활문화센터의 불안요소라고 할 수 있다.

### 3) 이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이후문화의집은 2003년 11월에 개관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거리공연예술가 모임인 ‘사랑의 하모니’가 문화의집을 위탁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의집으로 운영되어오던 것이 2016년 3월에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로 개관하였다.

이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는 이후1동 주민자치센터에 입주해 있는데, 건물 1층은 이후1동 주민자치센터의 민원실 등이 자리하고 있고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는 공간은 지하1층과 2층 일부 공간이다. 이후문화의집이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면서 이전에는 활용하지 않았던 지하1층의 공간을 리모델링하였는데, 이 공간에 마루와 전면거울을 설치하여 무용이나 댄스와 같은 활동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층에는 상설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문화창작실, 동아리모임이 이루어지는 정보사랑방과 사무실이 있다. 2층의 절반 정도는 작은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일평균 이용자는 100명 정도이며 주로 주부들과 초등학교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인후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가 입주한 인후1동 주민자치센터 동사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 상점들이 많이 위치해 있다. 또한 대로를 경계로 한쪽은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 아파트단지는 10년 전 쯤에 재개발해 중산층 수준의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쪽 블록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택가가 위치해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센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중산층이 많고 문화 활동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인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는 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기본으로 동아리나 소규모 공동체(예: 공동육아) 조직, 전주 생활문화축제, 축제(연 2회), 동네예술장터 등을 운영 하고 있다. 센터 담당자는 강좌 프로그램이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 전달 이상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지역 문화네트워크 형성에 기여를 하고자 여러 지역 활동을 유도하고 있는데 인후문화의집의 역사가 오래 되어 이러한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센터의 담당자는 동네 예술장터에서 수제 옷을 판매하는 사람을 강사로 섭외하거나 동네 재봉틀 솜씨가 좋은 아주머니를 물색하여 재봉틀 강좌 프로그램의 강사로 섭외한다. 그리고 강좌 종료 이후에는 재봉 동아리가 꾸려지도록 유도하였고, 재봉 동아리 ‘미녀와 봉틀’은 지역 환원 활동으로 옷을 만들어 기부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편, 타악기 난타나 만들어진 악기 강좌 프로그램 수강자들은 지역의 요양병원 등을 찾아 공연을 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뒷받침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참여하도록 지역주민, 문화의집 실무자, 동아리 대표, 강사로 구성된 자체적인 운영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인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협의회는 센터의 예·결산, 프로그램 기획부터 지역의 현안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다. 인후문화의집은 강좌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시작하여 이를 통해 동아리와 운영협의회 조직, 지역공헌활동으로 이어지는 지역 문화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구축해나가는 거점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인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를 찾는 지역 주민들은 더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공간이 부족하고 이를 운영할 인력이 부족하여 활동을 확장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여 있다. 센터는 문화의집 직원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평일과 토요일 운영시간 동안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 외에 문화기획 인력의 확충이 있어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증설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문화의집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 활동이 이루어져왔었고 이러한 활동들이 생활문화센터의 활동들과 크게 구별되지 않아 이전의 운영 방식과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인후문화의집의 경우 생활문화센터로의 전환은 시설 노후화 문제 해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활문화센터를 민간단체에

3년 수탁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교체될 경우 생활문화센터 활동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림 4-6> 인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 제3절 국외 생활문화공간 사례

#### 1. 독일 사회문화센터

독일의 사회문화센터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을 위한 기관이다. 그러나 ‘사회’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문화예술 그 자체만을 위한 곳이 아니며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벌어지는 장이다.

‘사회문화’ 개념은 1970년대 독일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이때 사회문화는 전통적으로 통용되어 왔던 ‘문화’ 즉 소수의 엘리트가 누리는 문화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문화를 의미하였다. 사회문화는 지역의 요구,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현실화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문화적 실천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문화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예술과 관계되어 있다. 그렇지만 사회문화가 예술에 대항하는 운동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보다는 예술적 수단으로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활동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인 자기활동을 증진시키고 문화예술에 접근하도록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사회문화는 문화예술교육,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여성이나 노인 또는 소수자들의 문화활동, 커뮤니티 기반의 문화활동 등의 다양한 실천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의 공간으로서 생겨난 것이 바로 사회문화센터였다. 사회문화센터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제도권의 문화와 교육의 장과는 달리 자유로운 공간에서 여러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문화적, 사회적 관심과 욕구를 실현하고 충족하는 사회문화 실현의 핵심적 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센터들은 일상의 경험과 문제, 사회적 현실들을 포함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들을 문화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생산의 주체로 만들고 그들 스스로가 예술적이고 미적인 상상력과 표현 가능성, 창조성을 갖게 하여 독자적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장이다.

독일의 사회문화센터는 일정한 모델이 있지 않으며 건립이나 운영에 있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사회문화센터의 건립 및 운영주체는 지역단체, 시민단체, 학생단체, 청소년단체, 도시행정집단, 정당, 개인 등 매우 다양하다. 현재 독일의 사회문화센터를 건립주체별로 분석해 보면 개인에 의해 세워진 경우가 26.1%, 시민단체에 의한 경우가 18.2%, 기타가 13.9%, 청소년센터가 10.9%, 학생단체가 9.7%, 지역단체가 7.9%, 도시행정집단이 5.5%로 되어 있다. 이렇게 건립과 운영주체의 범주가 다양한 만큼 사회문화센터는 다양한 고유이름을 갖고 있다. 문화센터 건물의 1/3 정도는 과거에 공장이었던 건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가게나 상점을 이



용하는 경우도 10.4%나 되고 창고를 이용한 경우도 6.5%나 된다. 심지어는 역, 병원 그리고 도서관 등의 건물을 이용한 경우도 있다(정갑영, 1996: 93-95).

사회문화센터의 활동을 보면 소재 지역의 특성과 센터 내의 설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각종 행사, 집단의 만남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사회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프로그램은 음악, 연극, 무용, 스포츠, 도자기, 사진, 회화(그림)등의 다양한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나 문화예술에 관련된 행사는 물론 평생교육, 사회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때로는 정치적 행사까지도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행사는 정당 활동이 아니라 제3세계, 평화, 반핵, 여성 등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것들을 의미한다. 또한 바자회, 베품시장, 축제 등을 주도하여 지역 주민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행사도 포함되어 있으며 영화상영, 디스코텍 개방, 록 콘서트, 재즈, 연극, 어린이극 등도 빈번하게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문화센터가 소규모나 중간 규모의 도시에 위치해 있을 때 이러한 지역은 사회문화센터가 유일한 문화시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사회문화센터는 문화예술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의 행사들은 사회문화의 실현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가들의 등장무대이자 지속적인 예술활동의 터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예술 전체의 실험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사회문화센터는 아마추어와 전문 예술인들이 협업하는 장이다. 수많은 전문 음악인, 연극인, 미술가들이 사회문화센터에서 공연이나 전시를 하고 아마추어들을 가르치고 함께 작품활동을 하기도 한다. 시민들은 사회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예술가와 만나 자신들의 기량을 다듬고 발표의 장으로 사회문화센터를 활용하는 것이다.(강운주 외, 2017: 225~6)

사회문화센터 운영은 '자치성'과 '민주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자치성은 외부적으로는 공적 지원에 대해 자립성을 갖는다는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운영 실무자 및 참여자, 이용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민주성은 무보수의 명예직 또는 자원봉사자인 실무자들이 센터의 일에 매력을 느끼며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센터의 규모에 상관없이 자치적 운영은 내부의 협의체 내지는 결의기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센터가 크면 이런 기구는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으며 회의도 더욱 빈번히 열리게 된다. 센터의 결정사항은 간부진의 회의에서 약 24%, 회원총회에서 38% 정도가 의결된다. 그러나 각 프로그램은 40% 이상이 해당 기획단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일상적 업무는 실무자들이 결정을 해서 추진한다.(김미혜, 1996)

## 1) 지역 사회문화센터

### (1) Kulturfabrik Moabit Lehrter Str. 35 eV

베를린 모아비트구에 위치한 사회문화센터인 Kulturfabrik Moabit는 과거 공장이었던 건물을 활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1911년에 Prussian Army Meat Industry로 세워졌으며 192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제과 공장으로 이용되었다. 1983년에 의회 소유가 되었으나 1973년부터 1990년까지 비어있던 건물에 1991년에 예술가, 학생들이 모여 “Aktionsmonat Mai” 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문화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센터내 공간으로는 공연장(Fabriktheater), 영화관(Filmrauschpalast) 및 야외 극장, 전시 및 파티룸(Slaughterhouse), 커피숍, 공작실, 운동장 등이 있으며 주변 건물을 일부 임대하여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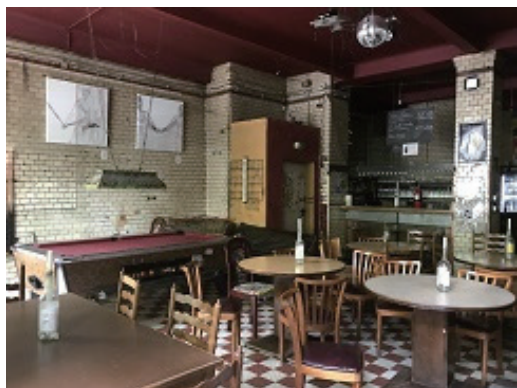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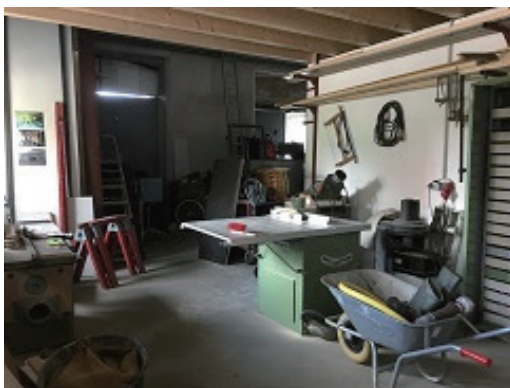
독일내 많은 사회문화센터들이 커피숍이나 펍 등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수입원이자 활동 공간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Kulturfabrik Moabit의 커피숍은 매일 저녁 6시부터 밤 1시까지 운영하는데 맥주와 음료를 판매하며 당구대와 같은 놀이기구, 잡지나 책,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커피숍은 동네 주민의 일상적인 사랑방 공간이자 모임이나 회합장소, 예술가들의 전시장으로 애용되고 있다.

### (2) Kurturzentrums cuba(Cultur- und Begegnungszentrum Achtermannstraße e.V.)

빈스터시에 위치한 사회문화센터 cuba는 1984년 “Verein zur Förderung und Vernetzung der Alternativ-kultur” 이 창립되어 1986년부터 이전에 칼리지였던 건물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작하였다. cuba e.V. 그 자체가 하나의 단체이면서 공간의 운영자이며 독립적인 비영리단체들이 멤버로서 혹은 입주단체들이 모여 있는 형태이다. 각각의 단체들은 개별적인 인력과 재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uba 자체적으로는 문화예술, 심리상담, 고용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문화센터가 직접 펍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cuba의 경우 펍인 CUBA NOVA는 cuba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센터이자 프로그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공간은 1988년에 소유자의 기여, 시 보조금 일부,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기금, 후원금 등을 통해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약 2,000㎡의 연면적에 공연장, 세미나실, 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다.

<그림 4-7> 사회문화센터 Kultrufabrik Moabit 전경 및 내부시설



<그림 4-8> Kulturzentrum cuba 내부시설



## 2) 협회(Bundesvereinigung Soziokultureller Zentren e.V./Landesarbeitsgemeinschaften)

사회문화센터는 주 단위로 지역 협회(Landesarbeitsgemeinschaften, LAG)를 구성하고 13개 주 협회는 다시 연방 협회(Bundesvereinigung Soziokultureller Zentren e.V.)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연방 협회는 유럽 네트워크의 일원이기도 하다. 현재 독일 전역에 걸쳐 약 470여 개의 사회문화센터가 협회에 가입해 있다.

연방 협회는 국가 단위에서 사회문화센터를 대변하고 문화정책에 개입하고 개별 센터의 기획자 혹은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각 지역 협회는 지역별로 다른 관심 사안과 의제들을 갖고 있어 다양한 활동의 양상을 보인다.

### (1) LAndsarbeitsGemeinschaft Soziokultureller Zentren Nordrhein-Westfalen e.V.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회문화센터 협회(LAG Soziokultur NW)는 사회문화센터들 간의 정보 교환과 교류를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포럼 형태로 운영되던 모임이었으나 1984년 본격적인 조직의 형태를 갖추었고 1989년에 공익협회(Gemeinnütziger Verein, e.V.)<sup>3)</sup>로 등록하였다. 현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협회에는 64개의 사회문화센터가 가입되어 있으나 가입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협회는 지역 단위에서 정치적으로 사회문화센터를 대표하고 재정적인 보조를 하고 있다. 개별 사회문화센터가 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반영하고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보하여 각 센터에 보조해 준다. 또한 문화·정치적 이슈들을 공청회나 토론회, 워크숍, 출판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 밖에도 협회에 소속된 개별 센터들 간의 교류, 컨설팅, 자문 등의 역할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며 연방 정부로부터는 사업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 연간 예산은 100만 유로(약 13억 원) 정도이지만 연방 정부의 사업보조에 따라 변동 폭이 크며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는 이민자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이밖에도 2-3년마다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를 받기도 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협회는 2017년 5월 선거로 인해 주정부 구성이 바뀌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당면과제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문화, 스포츠, 가족, 청소년을 한 부처에서 관장했는데 새 정부에서는 문화와 과학이 한 부처가 되었고, 청소년, 가족, 이주민 분야를 한

3) 공익협회(Gemeinnütziger Verein, e.V.)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독일의 법적 조직이다.

부처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협회는 주정부의 정책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변화된 운영 전략을 필요하다는 것이다.

## 2.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가나자와는 동경 북쪽의 호쿠리쿠 지방에 위치하는 해안 도시로, 항구와 온천, 칠기, 전통공예, 스키장이 있는 고풍스러운 도시이다. 면적은 467.77km<sup>2</sup>, 인구는 457,460명(2005년 기준)이며 일본 최초로 주민에 의해 전통환경보존 조례가 제정되어 역사경관이 보존된 역사 도시이다.

시민예술촌은 1920년대 중반기에 건축된 대화방적의 창고를 12억 엔을 투자해 문화창작 및 연습장으로 리모델링하여 1996년 10월에 개관하였다. 부지 면적은 97,289m<sup>2</sup>, 건축면적은 3,261m<sup>2</sup>이며 건물 대부분은 외형을 건드리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음악, 미술,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 연습 및 발표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가나자와 시민들이 함께 모여 연극, 음악, 무용, 미술활동 등의 연습, 제작, 연수 및 성과발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문화 창작활동을 원하는 시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시민예술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참여를 통해 연습 및 성과발표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풍요로운 지역문화를 만들며, 지역문화의 거점 공간으로서 시민 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창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예술촌을 위해 가나자와시가 운영비를 지원해 ‘24시간 365일’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며 시내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해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한 해 이용자가 1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다양한 문화공간이 집적되어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클러스터이며 크게 5개의 공방과 직인대학, 퍼포먼스관, 잔디광장, 사무동, 레스토랑, 전통가옥 사토야마의 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민예술촌의 설치주체는 가나자와시며 재단법인 가나자와 예술창조재단이 관리하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 시민예술촌에는 촌장, 촌장보좌, 주임주사, 주사, 촉탁이 있고 장애인 대학교는 4명의 전임직원이 있으며 2명의 경비용역, 2명의 청소용역, 1명의 중앙감시 업무직원이 있다. 시민예술촌은 시민디렉터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자주적인 운영이 원활하도록 했으며 1명의 시민종합디렉터와 6명의 시민디렉터가 있고 디렉터 정례회의는 월 1회 넷째 주 월요일에 열린다. 종합디렉터는 1년의 계약기간동안 종합적인 관점에서 시민예술촌을 운영하고 디렉터는 시민예술촌의 자주적 운영을 원활히 하고 각 공방에 2인씩 배치되어 있다. 일상업무는 서포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디렉터가 선

발한 서포터들은 각 공방의 디렉터를 보조하며 음악공방 20명, 미술공방 20명, 드라마공방 5명 정도가 접수, 홍보 등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중무휴·24시간 개방’ 과 1일 1천 엔 정도의 이용료라는 획기적인 운영 안으로 시민들 누구나 경제적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1억 5천만 엔 정도이며 저렴한 이용료로 수입은 2천 5백만 엔, 재정자립도는 17%에 그치나 시나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전문예술의 하위개념이거나 향수층의 확대 정도로 이해했던 ‘시민문화예술활동’ 을 적극적인 문화정책수단으로 공략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상당한 인지도 상승과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림 4-9>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전경 및 내부시설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의 사회문화센터와 일본의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독일 사회문화센터는 그 시초가 시민운동에 기원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자율성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정부나 지자체에 대해 독립적이다. 일부 프로젝트에 한해 정부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등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재원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은 독일의 사회문화센터에게도 도전인 상황이다. 독일의 사회문화센터가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려 노력하는 모습은 분명히 공간을 운영하는 단체나 활동가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다.

반면에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의 사례는 지자체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시가 설립한 기관이기에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 기관일 경우 운영예산과 시설 관리 등을 관에서 담당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시민자치에 맡기는 방식에 주목해 봐야 한다. 한국의 생활문화센터 또한 건립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기본 운영예산에 대한 지원 없이는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 제4절 국내 생활문화공간 사례

### 1. 서울 홍제동 닷라인TV

#### (1) 개요

서대문구 홍제동 주택가의 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일상적인 예술 놀이터로 운영하고 있는 닷라인TV는 큐레이팅 연구소에서 출발하였다. 현대미술이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을 시험하고자 예능적 미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고 주류 매체에서 소외되어 있던 다원화된 예술 표현을 발굴하여 전시기획을 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작업에 더해 직접 마을 주민들과 미술로 소통하기 위해 생활권에 밀접한 위치에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미술 소통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한다.

‘신나는 마을 미술관’이라는 콘셉트의 ‘닷라인TV’는 공간이 위치한 골목 담벼락에 애니메이션이나 실험 미술 영상을 상영하면서 호기심 어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하였다. 큐레이터는 골목에서 시작하여 공간 내부로 사람들을 들이기 위하여 마을 미술관에 문턱을 낮추는 작업을 지속하였다.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공간 내외부를 넘나드는 전시 작업을 지속하여 점차 동네 아이들과 어른들, 강아지들까지 자유롭게 오가고 전시 작품을



비평하는 마을 미술관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7년이 지난 현재 큐레이터가 담당하는 전시 기획을 제외하고 상당수의 프로그램과 수업 개설, 공간 운영원칙 설정 등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 주도로 기획, 운영하는 자율적 생활문화 공간이 되었다. 7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 (2) 운영현황

닷라인TV가 진행하는 각종 프로젝트와 전시는 매우 다양하다. 크게, 주민 창작활동 프로그램과 마을 예술 기획 콘텐츠 프로젝트, 커뮤니티 아트 전시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주민 창작활동 프로그램은 주민들과 작가들이 자유롭게 제안하여 직접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이다. 강좌를 수강하는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수업의 인원을 모집한다. 지역에서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지역 예술가들이 강사로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다. 현재 ‘동네양말 다나와 프로젝트(양말 공예)’, ‘수제 클래식 기타 만들기’, ‘미술하는 셰프’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여타 문화 시설들의 프로그램들처럼 특정 장르에 대한 기술을 익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말, 음식 등 일상적 요소와 미술의 관점을 접목하여 발상의 전환과 창작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마을 예술 프로젝트는 청소년이 만드는 마을예술 방송국과 담벼락 극장과 같은 골목 재생 프로젝트, 닷라인TV에서 상시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예술가의 마을 입주 프로젝트, 문패 골목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와 강좌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아트 전시로 이어진다.

현재 닷라인TV와 관계 맺는 사람들은 900여명 정도인데, 주 이용자들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특화된 콘텐츠의 경우에는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 주 이용자들은 ‘경력단절여성’로 불리는 30~40대 여성들로 주부가 많은 편이다. 이들은 육아를 전담하면서 직업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지만 닷라인TV와 같은 지역 문화예술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본래 특기를 발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직 디자이너였던 주부는 닷라인TV 전시의 리플렛 등을 디자인을 맡고 있다. 그리고 자기 전공분야의 강의를 개설하여 강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또, 각종 문화예술 공모 사업에 이용자들이 직접 제안서를 작성하여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한다.

닷라인TV의 열성 참여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서 향후 프로그램 기획이나 공간 운영 원칙 설정, 제기되는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 등에 대해 회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주로 3년 이상 미술관을 이용한 사람들이 많으며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의 관리도 운영위원들이 당면제로 관리하고 있다. 닷라인TV라는 공간이 7년이라

는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소중한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3) 특징 및 시사점

닷라인TV는 2010년에 공간지원사업, 2013년부터 서울시의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공간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다. 이 예산을 통해 공간을 조성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닷라인TV를 처음 조성한 큐레이터는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을 모으고 서로 관계를 맺어왔다.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 매개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공간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왔다. 대개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에 머무는 경우가 많지만 큐레이터가 공간의 가치를 창출하고 공간 이용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태도가 변화한 것이다.

그 결과 기본적인 시설 관리는 주민들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주민 창작 활동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지불하는 수강료로만으로 운영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 외에 특별한 프로젝트들은 각종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닷라인TV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이 홍제1동의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닷라인TV라는 공간을 매개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 커뮤니티가 도시재생 활동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닷라인TV를 통해 주민들과 작업하는 작가들에게도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순수 미술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작가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작품 세계를 넓혀 다채로운 커뮤니티 아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개 주민들과의 작업은 예술적 퀄리티의 저하를 불러온다는 인식이 있지만 서로의 관점과 생각을 매개하는 큐레이터의 노력을 통해 다른 존재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문화적 에너지의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전문 작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창조적 영감과 예술적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매개하는 큐레이터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닷라인TV는 생활문화센터와 민간이 주도하는 생활문화공간들에 비해 창의적인 생활문화 활동들을 전개해나가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능력과 열정이 있는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생활문화 공간을 활성화시키는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매개자들이 보다 창의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생활문화 매개자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 4-10〉 서울 닷라인TV 전경 및 내부시설



## 2. 전주시민놀이터

전주에는 생활문화센터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전주시민놀이터’가 2013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전주시민놀이터의 기본 기능은 시민들의 생활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에게 연습 공간을 대관하고 있다. 대관은 연중무휴, 24시간(요청 시) 이루어지고 있다.

전주시민놀이터는 2012년 동문예술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설계되었다. 기존에 사설학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차, 리모델링하여 2013년 3월에 개관 했다. 조성 전에 151개 동아리, 2,131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문화활동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장르별 동아리 비율에 맞게 각 장르 동아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구성했다. 1층에는 작은 발표나 모임이 가능한 카페가 있고, 회의나 세미나가 가능한 회의공간과 장애인편의시설이 있다. 1층 한편에는 갤러리 공간으로 조성하였는데, ‘나도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전시 공모를 하여 운영하고 있다. 2층에는 음악활동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3층

에는 무용을 위한 연습 공간, 개인연습실, 창작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전주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전주시민놀이터는 전주시 전역에서 접근성이 좋다. 전주 각 지역에 분포된 동아리 회원들이 모이기에 적합한 입지에 조성되었다. 이용자들은 주로 시민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 문화예술 동호회들이며 그 외에도 세미나나 포럼을 위해서 외부단체에서 대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기관이나 법인에서 대관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정기 대관의 경우는 예약을 받기 시작하면 거의 바로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공간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많다.

전주시민놀이터 대관 사업의 특별한 점은 24시간 개방을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공간대관은 회원제로 운영을 해서 회원 가입과 이용 시 이용 수칙에 대한 교육을 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용 수칙과 공간에 대한 이해 없이 이용할 때 여러 문제에 봉착하여 사전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인력은 3명이 운영하는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1인,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1인, 주말을 전담하는 인력 1인이 있다. 저녁 9시 이후에 이용하는 동아리에게는 야간 이용자 동의서를 받아서 야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고 소등과 건물 잠금 등의 시설관리를 맡기고 있다. 동아리 회원들의 자율적인 주인 의식을 강조하는 운영 방침으로 아직까지 큰 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다.

동아리 회원들의 자율적인 주인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교육을 철저히 진행함과 동시에 전주시민놀이터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기본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공간에 물품기부 등의 활동을 한 회원들에게는 추가적인 할인을 더 제공하여 장소에 대한 소중함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개관 3년 차부터 이용자들 사이에 이용 규범이 정립되어 현재는 공간 운영이 안정화되었다.

전주시민놀이터는 공간을 이용하는 동아리 회원들이나 주변 상인들과의 소통과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기획단계에서는 동문예술거리협의회가 같이 기획에 참여했었고,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상가협의회의 협조가 있었다. 또한 전주시민놀이터의 실사용자들 중 15명을 시민지기로 운용하며 연1회 워크숍, 주기적인 회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전주시민놀이터의 불편사항, 운영,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 시민놀이터 페스티벌, 갤러리 기획전 등의 네트워크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기획 중인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는 전주의 다른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과의 연계와 교류 방안 모색 중이다.

<그림 4-11> 전주시민놀이터 전경 및 내부시설



전주시민놀이터 대관현황

구분	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 체육	월 13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월 14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수 15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목 16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금 7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토 13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일 19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전주시민놀이터 대관현황 표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월별 대관 횟수를 보여줍니다. 표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동문예술거리 조성 사업의 추진 주체로써 동문예술거리협의회 소속으로 전주시민놀이터 조성을 준비해 온 인력이 전주시민놀이터가 개관한 이후 전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인력으로 흡수되었다. 사업 예산 역시 전주문화재단의 사업비와 자체 대관 수익을 통해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예산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은 건물 임차료 상승 문제이다. 2013년 월 250만원이었던 임차료가 2017년 현재 400만원으로 상승하였다. 현재 250회 이상의 대관이 이루어지고 월 2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생활문화시설로 자리 잡았지만 건물주는 임대 재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인상된 임차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차료 상승 문제는 향후 공간운영에 있어 커다란 불안요소가 되고 있어 중요한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 3. 수원 생활적정랩 빼꼼

생활적정랩 빼꼼의 시작은 서수원의 문화자원 조사 사업에서부터 시작한다. 수원문화재단에서는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서수원 지역에 대한 문화 사업을 고민하는 한편 지역 기반 예술 프로젝트에서 리서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형을 보여줄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서수원 문화자원 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으로 2015년에 임시 공간을 얻어 기획자들이 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아카이브 전시를 진행하였는데, 사업 종료 후에도 참여한 문화기획자들이 지역을 매개하는 공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이를 유지시켜 나가하고자 하였다. 2016년 경기문화재단 창생공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공간을 유지해나가고 있다. 창생공간 지원 사업은 제작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의 커뮤니티 자원들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빼꼼은 발효를 콘셉트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메이커 문화의 소스들을 리서치하였고 구체적인 발효 관련 제작활동을 하고 있다.

생활적정랩 빼꼼은 일상적인 제작 행위를 통해 일상을 다시 생각하는 매개물으로써 발효에 주목한다. 보다 많은 소비를 지향하는 생활 가운데, 버려지는 것이 다시 변화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그 과정으로써 발효에 주목한다. 빼꼼에서 고정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는 대표를 포함하여 총 4명이다. 기본적으로 각 작업자들이 수행하는 발효와 관련한 활동을 중심으로 이러한 작업들을 공유하는 발효 워크숍과 시감회, 활동에 관한 아카이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발효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작가 활동이 중심이지만 서둔동 생활권에 밀착한 지역이라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나 어떤 짜여진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빵이나 식초와 같은 발효가 필요한 먹거리를 만들고 싶을 때 빼꼼을 찾

으면, 자연스럽게 발효 기술을 전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빼꼼 공간 앞에 텃밭마차 역시 일상적으로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는 소재가 되었다. 빼꼼은 정형화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리 잡은 생활권에서 우발적이지만 일상적인 사건들로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문화 공간이다.

<그림 4-12> 수원시 생활적정랩 빼꼼 전경 및 내부시설



#### 4. 수원 벌터마을 문화마실

서둔동 벌터마을은 선경직물이 들어오면서 노동자들이 모여살기 시작한 동네였지만 현재는 직조산업의 쇠퇴와 전투기 소음 등으로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어가는 마을이다. 서둔동 벌터마을은 문화관광부에서 진행하는 문화마을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3년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벌터마을 문화마실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해서 조성된 공간이다. 2016년 9월에 오픈한 문화마실은 다

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현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는 등 마을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문화마실 공간은 음식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공유주방, 음식을 나누고 모임을 진행 할 수 있는 공유식탁,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별터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마실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매달 마실 초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마을 음악회를 열거나 인문학 강의를 한다거나 같이 영화를 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학교와 축제, 마을 음악회, 마을 환경 개선과 관계지향형 마을 디자인 실현을 위해 게시판과 이정표 설치, 아트상품개발 등을 기획하고 있다. 그리고 손바느질 수업과 직조 수업텃밭 수업, 제빵, 가양주, 연극 인문학강의, 풍물수업, 우쿨렐레, 우리 술 빚기 등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근처 초등학교와 하는 놀이수업, 마을음악회, 영화관람, 마을축제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문화마실의 목적은 강좌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이나 지식 전달보다 마을의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문화 서비스를 수용하기만 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문화를 창조하고 기획하고 문화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지향한다.

문화마실을 이용하는 별터마을 주민의 숫자는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수업에는 10명 ~ 15명, 음악회 같은 행사에는 40명 정도 참여한다. 공간은 2명의 상근직원과 1명의 비상근 디렉터가 운영하며 지역에 오래 거주한 어르신들을 주축으로 하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에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

문화마을 사업은 3년 기간의 사업이다. 마을에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사전 조사와 같은 준비작업과 충분한 시간이 중요하다. 하지만 문화마을 사업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사전 조사 작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바로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사업 초기인 현재로서는 지역 주민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보다 주체적인 마을 활동이 가능한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3년이라는 사업 기간으로는 역부족이다. 마을 문화 사업을 지원하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사업기간을 설정한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공공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해나가거나 마을을 디자인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낯선 일이다. 이러한 경험이 의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하여 정책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3> 수원 벌터마을 문화마실 전경 및 내부시설



## 5. 서울시 문래동 문래예술공방

문래예술공방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철공소와 공장이 밀집한 골목에 위치해 있다. 문래동에 철공 산업과 관련 업종들이 쇠퇴하면서 빈 공간들이 생기고 빈 공간에 작가들, 주민들이 모여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 왔다. 현재 문래예술공방의 대표 역시 문래동에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문래동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2011년 빈 다방 공간에 전시와 공연, 모임 공간을 조성한 ‘정다방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만난 지역 주민들이 작가들처럼 무언가 만들고 창작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출하면서 문래예술공방이 만들어졌다.

문래예술공방에서는 주로 재봉틀 위주의 수업 및 모임이 진행되며 가구 업사이클링 등 적정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었다. 그밖에도 한국화 채색, 수채화 캘리그래피, 생활목공, 매듭팔찌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참여자들은 인근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많다.

문래예술공방은 지역 주민들 간에 주체적인 활동을 지향하며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지향한다. 다른 문화시설들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강좌 프로

그럼 위주로 운영되지만, 강사와 수강생을 모집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경력이 있는 전문 강사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수업을 하고 싶은 아마추어 주민 강사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수강생들이 다른 수강생들을 직접 모집해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활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 필요한 것을 충족해나가는 방식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방은 공간 제공의 역할을 하며, 공간의 매개자는 새로 공간에 참여한 사람에게 공간의 취지를 설명하고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간 이용료를 받지 않고 강사도 별도의 수업료는 받지 않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저 어떤 창작 활동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문래예술공방을 활용할 뿐이다.

문래예술공방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루에 15명 정도로 수업 당 5명 정도의 소규모 모임으로 진행된다. 소규모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유는 모임원들 간에 밀도 있는 교감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문래예술공방의 운영예산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을 통해서 마련된다.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은 각 마을의 마을예술창작소 총 35개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금액은 선정 후 2년간 매년 천만원, 이후 3년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 5백 ~ 1천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공간임차료와 운영비 등은 이 예산으로 해결가능 하지만, 운영자의 활동비나 강사비 등은 운영예산에 거의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공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경제적인 불안정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4> 문래예술공방 내부시설



## 제5절 시사점

국내의 여러 생활문화센터들을 사례 조사한 결과, 생활문화센터라고 새롭게 명명된 공간이 2015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까지 생활문화센터만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문화 시설과 기관들에서 운영하는 주요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시민들에게는 각 문화 시설이 이름이 무엇이며 설치 근거법령이 무엇이든, 주체가 누구이고 지향점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공공 주도의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시민들은 어느 시설의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공공이 제공하는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의집,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유사 생활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문화 공간들과의 관계와 의미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생활문화는 개인의 차원에서 전문 예술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자기 삶의 의미화를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자기표현의 수단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즉, 생활문화는 장르적 관점에서 활동의 내용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행위 주체와 활동 방식의 관점에서 보통의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창작하는 문화 활동을 의미한다.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체적 자기표현은 타인과의 창조적 커뮤니케이션을 발생시키며 공통의 의미와 감각을 공유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내면화하여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생활문화의 개념적 특성에 근거하여 생활문화센터가 고유한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생활문화센터라는 공공공간을 대하는 시민들의 능동적인 시민의식과 주체적 자기표현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역설적으로 시민들이 자기표현의 수단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창작하는 생활문화 활동이 생활문화센터라고 명명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기할 수 있다.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범주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문화 시설 일반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와 기존 문화 공간과의 관계 정립 문제는 생활문화센터를 기존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 시설들과 차별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 문화 시설들과 어떻게 생활문화의 지향을 공유하고 연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까지 국내 생활문화센터 운영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프로그램(문화예술 강좌, 연습 공간 대관, 축제(공연-전시) 등)들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운영 인력 부족과 저임금, 사업 예산의 부족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에 기인하여 보다 창의적인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몇 가지 프로그램 들에 한정되어 운영할지라

도 그 틀 안에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에서 문화에  
술적 에너지가 생성되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만 생활문화센터 조성 자체에 중점을 뒀던 센터의 경우 운영방향 자체가 부재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운영주체의 모호함과 불안정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직  
영으로 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공무원의 순환보직 문제가 있으며 민간위탁으로 운  
영하는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위탁단체 교체로 인한 운영의 불연속성 문제가 발생한다. 시  
민 주도의 자율적인 문화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생활문화센터들이 있지만 아  
직까지 대부분의 생활문화센터들이 시민 중심의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기도 쉽지 않은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의 생활문화공간 사례에서는 다른 맥락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의 사회문화센터의  
설립이나 조직은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졌다.  
사회문화센터의 운영 또한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발성과 자립성을 기반으로 해서 수  
행되고 있다. 사회문화센터 공동의 문제를 위한 네트워크 조직도 자발성에 기초하여 형성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운영이 가능한 것은 사회문화센터 역시 서구에 뿌리내리  
고 있는 시민사회 전통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센터는 독일의 정책적 시도로  
형성된 공간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결과로서 생성된 곳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전통이 약  
한 한국의 상황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서구의 사례를 한국과 단순 비  
교하거나 무조건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한국의 생활문화센터가 진정한 의미의 생활문화공간이기 위해서는 자발성이라  
는 가치에 대한 지향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여건상 일정 정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고 그 가치를 성취하는 방식이나 여정은 서구의 사례와 다를  
수 있다. 독일 사회문화센터와는 달리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시의 정책 사업으로 조  
성된 곳이다.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의 경우 비록 설립과 운영 주체는 가나자와 시와 가나자  
와 예술창조재단이지만 실질적인 관리와 운영은 시민들의 손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민의 자율과 자치는 시민들만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관료주의적이  
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을 탈피해 소통중심의 문화행정과 과감한 운영방식의 채택을 통해  
시민중심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던 것이다. 관에 의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운영은 시민  
자율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자율적  
이고 자발적인 운영에 대한 지향과 끊임없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진정한 생활문화공  
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생활문화 공간 사례에서도 주민 주도의 자발적 문화 공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닷라인TV의 경우, 7년 동안 공간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해 나가면서 공공공간에 대한 규범과 시민 의식이 자리 잡게 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기획해나가는 단계에까지 나아갔다. 그 바탕에는 이 공공공간에 대한 애착을 가진 시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해온 큐레이터의 역량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닷라인TV 뿐 아니라 전주시민놀이터 등 여러 생활문화공간에서 그 공간에 대한 규범이 자리잡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용하는 시민 간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를 조정하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공간에 대한 이해와 가치 지향이 공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생활적정랩 빼꼼, 경기생활문화센터 등의 활동 사례에서 생활문화가 장르 예술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들의 일상적 활동들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조적 가능성을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민 각자가 자기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활동으로써 생활문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의 사회문화센터(Soziokulturelle Zentrum)와 문화공간들은 대체로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 특성이다. 이는 가나자와 시민예술촌과 한국의 공간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특히 독일의 사회문화센터는 가능한 한 유휴시설을 거의 손대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생활문화를 위한 공간은 기존의 예술기관처럼 거대한 규모나 최신 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친근성이 높을 수 있는 인근의 유휴공간들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경기침체나 산업의 변화, 도시 공간의 기능 변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유휴공간들이 발생한다. 사실 이러한 공간들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다른 어떠한 대안보다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용가치가 높다. 다른 기능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통한 새로운 공간의 창출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사례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생활문화센터의 구성과 운영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생활권에 밀접하여 높은 접근성을 지니는 공간에 조성해야 한다.

둘째, 유휴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자율성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공간 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해야 한다.

다섯째, 생활문화 관련 시설 간, 사람 간 네트워크 활동을 지향해야 한다.

여섯째, 공간의 재정적 자립성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사례조사 결과, 생활문화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책 추진에 있어 시간 자원의 확보이다. 현재 생활문화센터는 공공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데, 공공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에서 시작하여 주인의식을 가진 자율적 시민들의 공간이 되기까지 시민들이 공간에 대한 의미와 애착을 형성하고 공공공간 이용에 대한 규범과 시민 의식이 자리하기까지 최소한의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문화 지원 정책은 단기적 관점에서 수치로 환원되는 프로그램 결과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에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접근해야 한다.

둘째, 생활문화매개자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주도의 자생적인 공간이 되어가는 과정에는 시민들의 문화예술적 에너지를 자극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기획, 상호 갈등의 조정, 생활문화의 가치 지향의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네트워크 구축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는 새로운 자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문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유사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 작가와 기획자 등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서로 관계 맺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 제5장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발전방향

### 제1절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본방향

#### 1. 생활문화센터의 가치 지향

시민들의 자율적, 능동적 문화 공간인 생활문화센터의 지향점은 수원시가 지향하는 시민의 정부, 풀뿌리 자치 활성화 등 시민 주도형 거버넌스와 일치한다. 즉, 시민의 정부 문화 정책 영역의 핵심 전략과제로서 수원시 생활문화 활성화를 설정할 수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시민 주체들의 인정과 명예로 관계 맺는 비시장적 공간이자 놀이하는 공적 공간이다. 생활문화센터에서 주민은 이용자-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적 공간의 일원으로 자치하는 시민 주체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활문화센터는 정해놓은 특정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작하는 공간이기에 생활문화센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제출해야하며, 타인의 의견과 조율하면서 생활문화센터의 활동을 채워야하기 때문이다.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자기 활동을 모색해가며 그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기획하고 사람들을 모아야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은 소비자의 태도로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한다면, 자신의 창작과 개성을 표출하여 자신을 충족시키는 문화적 활동을 해나가기 어렵다. 그러므로 센터 운영과 공간 이용에 대한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가고 주요 결정사항을 의결하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참여 주민의 자치로 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를 지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생활문화센터는 수원시가 지향하는 시민의 정부의 문화 플랫폼인 것이다.

활동의 내용 측면에서 생활문화센터와 기존의 문화시설들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생활문화라는 광의적 개념 속에 포괄되는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현장에서는 생활문화가 무엇을 하는 활동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소통하기 어렵다. 하지만 생활문화 활동이 광의적이기 때문에 생활문화 활동의 창발성과 자유로움을 담보할 수 있다. 생활문화를 어떤 장르로 개념화하는 것은 시민들의 창발적인 문화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생활문화 활동은 장르 예술활동을 포함하여 지역 사람들의 삶의 경험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보일 수 있는 활동과 그것의 창조적 재해석이다. 생활문화센터에서도 장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생활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장르 예술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장르 예술 활동은 생활문화 활동의 일환일 뿐이다. 많은 시민들이 장르 예술과는 무관

한 삶을 살아왔다. 그렇다고 시민에게 창의성과 표현력이 잠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시민 각자가 살아온 삶의 맥락과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재해석하는 창조적 활동을 매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1> 생활문화 활동범위

구분		활동방식 및 참여형태	비고
생활문화 활동범위	창작	생활문화주체 스스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형태	적극적/능동적
	참여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의지로서 참여하여 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을 행하는 활동형태	적극적/능동적
	교육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의지로서 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활동형태	적극적/능동적 소극적/수동적
	향수	문화적인 무엇인가로부터 관람, 청취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는 수동적 활동형태	소극적/수동적

자료 : 조광호, 2015,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 생활문화센터 공간 구성

공간의 구성 원리 측면에서 생활문화센터와 기존의 문화시설들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생활문화센터의 공간은 최대한 기능이 제한되어있지 않은 가변적 공간이다. 공간에 기능들이 규정되어 있으면 다양한 활동을 위한 상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오픈 키친이나 방음 시설이 필요한 음악 공간 등 특정한 기능이 필요한 공간을 제외하고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한하지 않고 주민이 자유롭게 공간의 기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생활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과 인원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벽을 구획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여럿으로 나눌 수도 있고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동형·가변형 벽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문화센터의 가장 중심 공간은 커뮤니티 공간이다. 커뮤니티 공간은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아래 평상과도 같은 기능을 한다. 커뮤니티 공간은 만남과 교류가 발생하도록 벽과 가림막을 최소화한 열린 형태의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커뮤니티 공간은 생활문화센터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위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경유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커뮤니티 공간은 안내, 휴식, 상호교류, 정보 제공, 공연, 전시, 발표, 카페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커뮤니티 공간에 오픈 키친과 공유 냉장고를 설치하면 음식을 나누면서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커뮤니티 활동이 매끄러워질 수 있다.

커뮤니티 공간과 독립된 주민 자율 공간은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과 놀이 욕망을 상상하고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역시 복합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겸해야 한다. 주민 자율공간은 다양한 창작, 모임, 회의, 학습, 연습, 강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2절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발전 방안

### 1.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앞서 살펴본 바, 현재 수원시는 생활문화 정책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황이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은 2개소 조성 이후 계획이 없는 상황이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 수원문화재단에서는 연 1회 문화예술 동호회 대표 모임과 연 1회 동호회 합동 공연, 연 1회 사회공헌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 추진 이전에 생활문화 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생활문화 활성화가 수원시정이 지향하는 인간 중심의 도시, 시민 주도형 거버넌스, 도시 공동체 형성 등과 어떻게 접목되는지 공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에게는 현재 생활문화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전달하여 생활문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것보다 시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원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알리고 공유하는 일이 선행되어 생활문화 활동에 담긴 가치와 매혹적 에너지를 나누는 작업이 더욱 필요하다. 수원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생활문화 공동체와 생활문화 동호회의 기본적인 실태와 욕구 조사를 진행하며 기초 정보를 모으고 이 중 활발하게 활동하는 생활문화 활동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발굴한 활동 사례는 수원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는 미디어 동아리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시민들과 함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향후 조성될 생활문화센터에서의 활동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들과 공유할 수원시 생활문화 영상 콘텐츠는 생활문화 활동 사례,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개인의 일상과 삶의 이야기,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동 제안, 타 지역 활동 사례 등이다.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주인공인 영상 콘텐츠, 개인을 드러내주는 방식의 영상 콘텐츠를 시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과 SNS로 공유하여 생활문화 활동의 즐거움과 가치를 확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 2.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네트워크 협력 체계 구축

인간이 문화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은 각자의 창조성에 의해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생활문화 활성화의 관건은 예술의 형식과 결과물의 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고양시키는 과정으로서의 문화와 그 과정에서 분출하는 에너지에 주목하여 이를 어떻게 추동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문화적 열망이 일어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필요하다. 즉, 지역문화의 에너지가 고립되고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만남’이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개인들은 만남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또, 예술적 행위 과정에 필요한 무엇을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울 수 있다. 타인의 존재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내보이고 싶어 하는 것을 내보일 수 있다. 인정하고 인정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생활문화 활성화의 핵심적인 과정은 생활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화적 에너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에너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 1) 생활문화공간 네트워크 구축 및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 발굴

생활문화센터를 신규 조성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기존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 문화 시설과 공간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이다. 현재 수원시 생활문화센터와 수원시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수원영상미디어센터 등을 어떤 수원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각 공간의 이용 가능 인원과 시간 등을 조사하여 수원시 문화 공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 생활문화 공간이 시민들이 주도하는 생활문화 공간을 구축해나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쌓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연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수원시 생활문화지원센터가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역할하며, 매개자를 양성하고 예술가 등 생활문화와 관련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문화기반 시설 간의 네트워크를 쌓아 필요 시 이를 시민들과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면,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 활동이 벌어지는 최전선이다.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의 신규 조성은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는 생활문화 활동 주체들과 충분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을 때, 이들의 생활권과 밀착한 공간을 발굴하고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공간에 시민이 참여하는 개념이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필요에서부터 기획, 조성, 향후 운영에 생활문화 활동 시민이 주도하고 매개

자는 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예견되는 문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의 신규 조성은 조성 가능한 유휴 공간을 발굴하는 것에 더해 민간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종교 기관과의 MOU를 통해 종교 시설을 시민들의 생활문화공간으로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작업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나갈 수 있다.

## 2) 수원시 생활문화 활동 시민 및 지역공동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현재 수원에는 생활문화 관련 동호회 뿐 아니라 마을르네상스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공동체들이 있다. 기존 지역 공동체와 역량 있는 시민들은 생활문화센터에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지역공동체들이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활문화센터를 자치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공동체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 지역 공동체들의 갈등 해소 경험을 나누며 생활문화센터 참여자 간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민주적인 공간 운영을 하기 위한 자치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3. 생활문화매개자 육성

생활문화매개자는 일상의 문화적 관계 즉, 문화생태계의 1차 생산자의 등장과 활동을 매개하고 촉진한다. 시민 개인의 문화역량이 쌓이고 이를 통해 관계가 확장되는 것이 생활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라고 한다면, 생활문화매개자는 생활문화의 기반을 닦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여러 생활문화 공간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 생활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매개자의 역량과 지향에 따라 그 공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활동 양상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생활문화 매개자에게는 다양한 능력과 역할이 요구된다. 먼저,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개별 시민들과 원만하게 소통하여 각자가 어떤 창작 욕구를 가졌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생활문화 매개자는 각자의 창작 욕구를 인지하여 이를 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도록 도움을 주고 시민들 각자가 가진 탁월한 능력을 발견하여 다른 시민들의 강사로 연결한다. 즉, 생활문화 매개자는 참여하는 시민들을 맺어주고 상황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문화 매개자는 개인별 생활문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공동체는 생성하고 성장한 후 경직되거나 퇴화하고 소멸한다. 공동체는 유기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생활문화 매개자는 공동체가 경직되어 정형화된 활동을 반복할 때 창작의 에너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자극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거나 참신한 활동 사례를 공유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해야 한다.

이와 같이 생활문화매개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이에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앞서 몇몇 생활문화센터 사례에서는 생활문화매개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없이 공간 운영자에게 시설 관리 수준의 업무가 부여된 경우를 확인하였다. 그러한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생활문화센터의 비전과 생활문화 에너지를 촉발시키는 기획이 부재하다는 것 역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운영 인력을 불안정한 신분 상태와 저임금으로 고용한 사례 역시 빈번하였다. 열악한 노동 대가를 지불하고 전문성 있는 문화기획 인력을 유치할 수는 없다. 또한, 불안정한 신분 상태와 저임금으로 고용한 인력에게 전문적인 역량을 기대하고 다양한 역할 수행을 요구하는 것은 착취에 다름 아니다. 전문적인 생활문화매개 인력을 유치하고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림 5-1> 생활문화센터 운영 전략



#### 4. 수원시 생활문화진흥정책 실현 체제 구축

수원시 생활문화센터의 발전 방안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전담행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수원시에서 생경한 생활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생활문화 가치의 공유와 활동 사례 공유가 필수적이다. 네트워크 협력 체계 구축은 생활문화 진흥의 핵심적 요소이다. 수원시 생활문화지원센터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은 수원시 생활문화 네트워크 협력체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생활권별로 생활문화센터 지정이 가능한 공간을 개발하고 조성된 각 지역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지원과 생활문화센터 간 네트워킹 역할을 한다. 수원시 평생학습관, 도서관,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 수원시 문화시설들과 연계하여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생활문화동아리연합회 네트워킹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 창의적이되 생경한 생활문화 활동을 시범적으로 인큐베이팅한다. 생활문화 활동 사례와 생활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러한 생활문화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생활문화 활동을 제안하고 함께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에 필요한 생활문화 매개자 및 예술 인력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한편 수원시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활문화와 관련성이 있는 사업과 그 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가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한 예산은 정부지원 사업을 활용하고 생활문화매개자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 참고 문헌 |

<국문 자료>

김경욱(2003),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 문화경제연구 6권 2호, pp.31-53

김종길(2012), 국내 공동체예술의 흐름과 사례, 미술세계 2012년 11월호: 84-88.

박미연(2013), ‘실천’ 으로서의 예술: 민중미술 이후 한국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s)의 ‘상황’ - ‘재현’ 에서 ‘실천’ 으로 진화하는 예술개념에 관한 소고, 예술경영연구 27: 75~99.

이동연(2010),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 아비투스, 문화과학 61권, pp169-195

장은주(2008), 상처 입은 삶의 빛나간 인정투쟁-속물시대의 도래와 한국 근대성의 굴절된 규범적 지평, 사회비평 39권, pp.14-34

정갑영(1996), 독일 사회문화센터 운동의 전개와 그 의의, 문화정책논총 8권, pp.81-105

강윤주 외(2017), 생활예술: 삶을 바꾸는 예술 예술을 바꾸는 삶, 살림

김홍중(2009),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노명우(2011),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을 꿈꾸다, 사계절

알랭 로랑, 김용민 옮김(2001), 개인주의의 역사, 한길사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2011),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지그문트 바우만, 문성원 옮김(2002), 자유, 이후

에드워드 소자, 이무용 외 옮김(1997),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언어

한나 아렌트, 이진우 옮김(1997), 인단의 조건, 한길사

마거릿 콘, 장문석 옮김(2013), 래디컬 스페이스, 삼천리

데이비드 트렌드, 고동현 외 옮김(2001), 문화민주주의, 한울

미셸 푸코, 오성근 옮김(1994),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나남

고정민 외(2016), 2016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강윤주(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연구지원팀

김기봉(2016),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의 개념 분석, 문화예술지식DB 문화돋보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노명우 외(2008), 탈근대사회에서의 개인과 공동체 관계의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양혜원(2013),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렬(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광호(2015),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영문 자료>

Rotenberg , Robert & Gary McDonogh(1993), The Cultural Meaning of Urban Space, Bergin  
& Garvey

<웹사이트>

독일 사회문화센터 <http://www.soziokultur.de>

생활문화진흥원 <http://www.nccf.or.kr/>



#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lture-into-Life Center in Suwon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motion of culture-into-life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cultural policy. Culture-into-life is not artistic activities but rather cultural activities that ordinary citizens engaged and create. The culture-into-life center is a basic infrastructure for promoting living culture and a key base space. The Living Culture Center is a basic infrastructure for promoting culture-into-life and a key community sp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of Suwon's culture-into-life policy and center and to explor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uwon culture-into-life center through a case studies on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spaces for culture-into-life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the domestic spaces show that the citizens who use the space share the value and meaning of the space and establish the principles and norms until the cultural space created by the public policy becomes the citizen-led autonomous cultural creation space it can be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secur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In the case of overseas, it showed how to create a space using idle space such as factories, shops, warehouses, and a management that can be characterized as 'autonomy' and 'democracy'.

Suwon City has created two centers by matching the government expense and there is no plan for further development in the future. Suwon City has no comprehensive plan to promote culture-into-life. In Suwon, however, a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are being established for local residents such as the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public libraries, and Dong-Resident Centers. There are more than 280 cultural and arts clubs organized through arts learning programs at these facilities.

Suwon's Culture-into-Life Center should organize a committee of citizens, in terms of management, to ensure autonomy and democracy. In terms of activities, it should ensure various activities based on citizen's autonomy and make a network with local people and facilities.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secure a space close to the neighborhood of the local residents to have high accessibility, and to reveal the local identity by utilizing the idle space. The cooperation system for Suwon Culture-into-life Centers, to share the values of culture-into-life and activities and to link it with existing resources, is needed to serve as a hub of culture-into-life network in Suwon.

Keywords: culture-into-life, culture-into-life center, cultural space, regional cultural policy



## ! 저자 약력 !

최지연

사회학 박사수료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현)

E-mail : choi.jiyoun@suwon.re.kr

###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의 삶의 마을문화활동 실태분석 연구」(2016,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통계 지표체계 설정연구」(2016,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민의 삶의 만족과 도시정서변수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2016, 지역사회학회지)

「수원시 생활공간 경계분석 연구」(2015, 수원시정연구원)

「정조대왕 수원 화성 행차 재현을 위한 공동사업화 방안 연구」(2015, 수원시정연구원)



